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나는 민가협 엄마라해요
 아 글썽, 아십년을 하루같이 여기저기 꽃아다녔어요
 개처럼 끌려가고 버려지고, 파를리고 혼잡하면서도
 억쓰고 버텼지요. 왜냐구요?
 분명 깨달은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뭘스 겪어야 하는 '암살'의 귀중함!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힘입니다.
 수많은 좌절, 험준한 예로, 절망을 딛고 신지 그 빛보내민가요.
 이 몸통이 쓰러질 때까지 달려갈꺼예요.
 나는 민가협 엄마거든요.

- 임 기 란 -

2005년 인권문서보에서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임기란 어머니 팔순 기념 자료집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임기란 어머니 팔순 기념 자료집-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 임기란 어머니 팔순기념 자료집 -

- 차례 -

1. 임기란을 말하다	6
1. 임기란 소개	6
2. 인터뷰 및 기사	8
1) “사랑과 분노의 수첩”	8
2) 민가협 20년, 내 삶속에 꽤 괜찮았다	15
3) ‘민가협 20년’ 함께 걸은 임기란씨	21
4) KBS1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23
5) <경향과의 만남> 민가협 ‘목요집회’ 700회 임기란 前 상임의장	31
6) “다시는 이 콘서트에 서지 않으리라”	35
7) “내가 죽더라도 양심수들 석방됐으면...”	38
8) 박정희기념관 반대 100번째 1인시위 임기란씨	40
9) 민가협 목요집회 10년 ‘개근’ 임기란씨	41
10) 희망을 품고 엄마답게 산다	42
11) “16년의 외침, 젊은 구성원 통해 한 걸음 도약해야”	44

II. 임기란이 말하다	46
1. 민주가족: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46
1) 국민의 아픔, 집회 표현의 자유는 개 뼈다귀인가	46
2) 대한민국 촛불 만세!	47
3)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	49
4) 올해도 투쟁, 투쟁!	51
5) 고통 받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54
6) 그래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56
7) 속타는 양심수 석방운동	59
8) 바쁜 5, 6월	61
9) 애국열사들이여 민주가족을 지켜주소서	63
10) 다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65
11) 새해소망	67
12) 인권이 우뚝 선 ‘행복의 나라’로 달려갑시다	69
13)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71
14) 평화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73
15) 민가협 엄마들의 분주한 5월	75
16) 봄날, 민가협 엄마 단상	78
17) 새봄을 맞으며 희망을 품는다	80
18) 빨갱이 손가락질, 이제 그~만	82
19) 9월 국회는 열렸지만	84
20) 581회 목요집회를 마치고	87
21) 8·15 사면,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	89
22) 진실과 거짓	91
23) 우리는 왜 양심수 석방운동을 하는가	93
24)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은 안된다	95
25) 2월 有感(유감)	98
26)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00
27)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풍경	102
28)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04
29)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107
30) 파병철회! 외친 김선일씨를 추모에도한다.	109
31) 아, 푸르른 봄날에 부치는 그대 절규여!	111
32) 숭고한 인간의 권리, 그 값어치를 날로 소중히 여기는 민가협의 정신	113
33) 민중의 힘	115
34) 갑신년 새해, 남의 말도 소중하고 나의 생각도 들어주는 세상을 소망하며.	117

35)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	119
36) 네 가지 얘기	121
37) 9월을 맞으며	124
38) 복(伏) 날 쓰는 편지	126
39) 함께하는 연대투쟁, 인권실현 만세!	128
40) 6월 단상	131
41) 4월은 잔인한가	133
42) 정의가 끝내 이기는 세상을 소망한다	136
43) 경찰은 사대매국행위 그만두고 공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	138
44) 2001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 8 15에 생각한다	141
3. 기타 글 모음	143
1) <추도글> 이 글을 삼가 김대중 전대통령 영전에 드립니다.	143
2) 임태훈 투쟁!	144
3) <추모사> 그리운 정순덕 선생님 영전에 드립니다.	146
4) 수배자의 비극	147
5) 나는 소망한다	150
6)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152
7) 목요집회 400회를 맞이하여-우리의 소원	153
8) 금강산 민족대토론회에 다녀와서	155
9) 인권공대위 해산에 부쳐	157
10) "인권이 최고가 되는 날"을 꿈꾸며	158
11) 열두번째 공연을 열며	160
12) 열한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맞이하여	162
13) 우리 가는 길 외롭지 않네요	165
4. 현장에서	167

목요집회에 바칩

아 그대는 용감한 인권지기

-임기란-

아 그대는 씩씩한 민가협 엄마, 매주 목요일 2시 탑골공원 정문 앞
 북받치는 울분 떨치며 후들거리는 다리와 배꼽에 힘주어 목청 돋운다
 "양심수 전원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외치고 외쳤더니 어느덧 11년 세월이 지났구나
 우리 귀한 자식 어떤 놈이 죄없이 잡아갔나
 풀어내라 풀어내! 보랏빛 수건 눌러쓰고 촛하추동 지성껏 악을 쓴다

아 그대는 거침없는 민가협 엄마
 흐르는 눈물 흘뿌리고 덮쳐온 불안 떨쳐내어
 남녀노소 동지로서 단결하여 석방하라 석방하라 목청껏 절규한다
 사건조작메이커 공안 수사관들 간담 서늘게하는
 피나는 투쟁은 우리의 몫이구나
 영하15도에 발끝이 에리고 시려도 상관치 않도다
 찜통더위 35도 더위도 자유와 해방이 소중하니 아랑곳하지 않도다

아 그대는 용감한 인권지기
 굶은일 슬픈일 찾아다녀 함께하자
 내자식 남의 자식 구별없이 인권침해 당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자식이로구나
 함께 울고 웃다보니 어느덧 일흔고개 넘어가서 늙은투사라 불러준다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자, 할일 많아 바쁘다네

오훗! 그대 민가협 어머니들이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랑스러운 자 되고자 노력하자
 함께 울고웃고 아파하니 전진하는 걸음걸이 사뭇 당당하구나
 간히고 억눌린 자를 도와서 자유얻고 활보하게끔 손잡고 투쟁하세
 목요집회 만세!

1. 임기란을 말하다

1. 임기란 소개



임기란 어머니는 민가협이 창립할 당시 창립회원으로 활동을 시작 2009년 9월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거리의 어머니”, “모든 인권피해자, 소수자의 어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5년, 당시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아들이 반독재 운동과정에서 구속되기 이전까지 이 땅의 보통 어머니들과 다름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아들의 구속은 어머니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발을 구르다 경찰서 앞에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뒀아맨 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그런 고난에 있는 이들이 아들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내 자식, 남의 자식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양심수의 어머니가 될 것을, “몸으로 배운 깨우침”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반인권적 악법 및 제도를 바꿔나갈 것을 자처합니다. 최근에는 구속자 울타리를 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문제로 활동을 넓혀 여전히 인권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약력>

1930년 8월 5일 임창일, 김달생 외동딸로 포항 출생

1948년 포항여자고등학교 졸업

1949년-1954년 포항남부 중앙국민학교 교편

1953년 육군정훈대위 박희봉씨와 결혼

1965년 YWCA활동 및 평생회원

1985년 10월 구속자학부모회 활동시작

1985년 12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창립

1986년 민가협 회장 역임

1989년, 1997년, 1999년~2001년 민가협 상임의장 역임

2005년 세상을 밝게 한 100인 선정(환경재단)

2006년~현재 민가협 운영위원

2002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6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2. 인터뷰 및 기사

1) "사랑과 분노의 수첩"

김훈(소설가)
민주가족 2002년 8월 38호

임기란 여사(72)는 민가협 어머니다. 1985년 막내아들 박신철씨(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가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임여사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구별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해에 민가협이 결성되었고 임여사는 상임의장직을 4번이나 맡았다. 민가협의 젊은 어머니들도 상임의장직이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상임의장은 자꾸만 임여사에게로 돌아왔고, 임여사는 굳이 뿌리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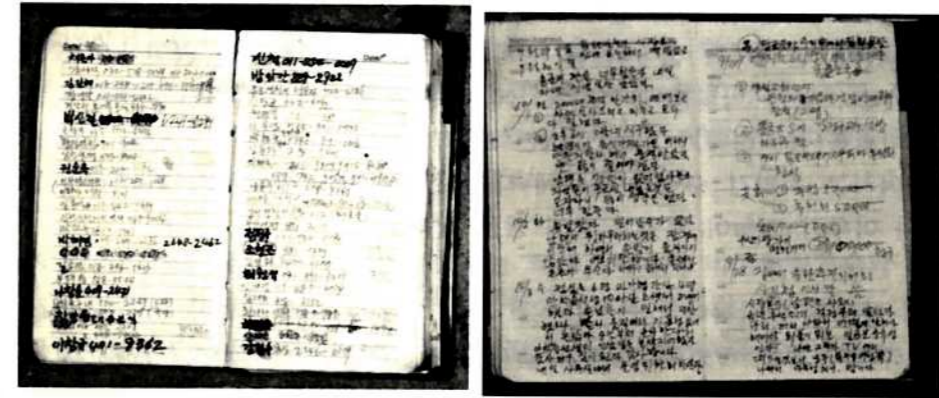
그 후 임여사의 생애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어렵고 거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임여사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냈다. 매주 탑골공원 앞에서 모이는 목요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구속자면회, 공안기관 규탄집회, 석방요구집회, 농성장 위로방문, 관련기관 항의방문, 거리시위를 이끌어내었다.

임여사의 생애는 사랑이 곧 분노이며, 분노가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을 억압하는 현실의 굴레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그 분노 앞에서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구별이 무너진다. 분노는 사랑을 보편적이게 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 세상의 두꺼운 철벽을 조금씩 허물어내기 시작했다. 그 분노는 세상의 상처를 모두 끌어안아 자신의 상처로 삼는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힘이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분노는 늘 억압적인 시대의 맨 앞장에서 있었고, 그 앞장에서 눈비에 젖었다.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문민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바뀌어도 어머니의 분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어머니의 분노가 살아있는 한 이 시대 전체는 그 어머니의 불효자식일 것이다.

임여사에게는 오랜 세월을 간직해온 두권의 수첩이 있다. 그날 그날의 일과 느낌을 적은 메모나 일기와 같은 수첩이다. 내가 남규선씨와 함께 임여사 댁을 방문했을 때 임여사는 그 두권의 수첩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아니, 그런 궁상맞은 물건을 뭐하러 들춰 보는가"라면서 임여사는 웃었다. 그것은, 놀라운 문건이었다. 시대의 고통을 현장에서 헤치고 나간 한 늙은 어머

니의 사실기록이었다. 개인의 느낌도 간략히 기술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 나라 온갖 수사기관, 정보기관, 경찰서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 여러 인권단체, 관련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들의 연락처와 구속된 학생들의 이름 학교 집주소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날 벌어졌던 일들이 꼼꼼히 적혀있었다.



나는 그 수첩 두권을 빌려서 집으로 가져와서 며칠동안 한 줄씩 읽었다. 그 수첩 속의 글들은 현실과의 싸움에서 얻어낸 작은 것들과 얻어내지 못한 더 큰 것들을 정확히 기록했고,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바쳐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수첩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분노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현실 속의 실천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나는 이 짧은 글을 써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수첩을 읽어 보려한다.

1999년 3월17일

1. 서울구치소 면회(오전 9시30분)
 2. 국방부 앞 항의집회(오후 3시) 12명 참가
 3. 오늘 지출 영치금 2만원, 교통비 5천원(이상 공적지출), 점심값 1만원(사적지출)
- *내 사적인 지출을 줄여야겠다.

이날도 임여사의 하루는 바빴다. 아침에 구치소에 갔다가 오후에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영치금으로 2만원을 넣어주었다. 임여사는 이날 1만원으로 점심을 먹었다. 무언가 좀 비싼 음식을 먹은 모양이다. 그래서 임여사는 "내 사적인 지출을 줄여야겠다"라고 적고있다.

3월21일

최의건 수병이 맞아죽었다. 침통하게 예배를 드렸다. 원통하다. 누가 자식 키워서 군대 보내고 싶겠는가. 정박사님이 부검에 입회했는데, 역시 두개골 파열이라고 하신다.

이날 이후 임여사의 메모는 최의건 수병의 장례식, 향의집회, 국회의원을 찾아가 호소하는 일로 계속된다.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의문사유가족협회를 방문하고 위로도 했다. 임여사는 이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다가 3월26일 병이 났다. 병이 나면 언제나 남편 박희봉씨가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병원에 간다. 병원 뿐 아니라 박희봉씨는 아내가 가는 곳이면 으레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준다. 3월26일에도 임여사는 최의건 수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몸에 병만 났다.

3월26일의 메모는 짤막하다.

"분하다. 다리가 몹시 저렸다. 아빠와 같이 양재동에 가서 지압받고 밤 늦게 돌아왔다."

4월9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대검찰청 가서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했다. 총장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안3과장을 만났으나 반응이 시큰동했다. 추운 식당에서 중국음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오후 5시에 명동성당에 갔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단식을 이어갈지 걱정이다. 저녁때는 문익환 목사 방북 10주년 기념식에 갔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바쁜 하루였다. 검찰청을 방문한 일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모양이다. 임여사는 이날 자장면으로 점심을 먹었다. 이날 기록에 따르면 임여사는 공적으로 3만7천원을 지출했고, 사적으로 1만7백원을 썼다. 공적지출은 문목사 방북기념식에 낸 축의금과 회원들을 위한 차비였고, 사적지출은 빵값과, 집에 돌아올 때의 교통비였다. 임여사의 어려운 날들은 계속되고 있다. 명동성당에서 학생들의 농성은 계속되었고, 정치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가협이 남규선 총무마저도 농성장에서 기절해서 백병원으로 실려갔다. "분하고 또 분하다"라고 임여사는 날마다 썼다.

그 분노 속에서 임여사는 큰 술에 죽을 쑤었다. 학생들이 단식을 끝냈다. 임여사는 이 허기진 학생들에게 죽을 먹였다. 한총련 학생들 3백여명이 임여사의 죽을 먹고 단식을 끝냈다. 이날 죽을 퍼줄 그릇과 손가락이 모자라서 이 물건들을 마

련하느라고 임여사는 공금 1만6천원을 지출했다. 4월 24일의 일이었다. 그날도 임여사는 밤늦게 귀가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대학신문의 학생기자가 임여사를 찾아와서 민가협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 젊은 학생기자는 임여사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런 젊은이었다. 그날 메모는 이렇다.

2월15일

아침 10시쯤에 부산에서 대학신문 학생기자가 나를 찾아왔다. 민가협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도중에 학생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비전향 장기수가 뭐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이날 임여사의 메모에 따르면 임여사는 학생기자에게 비전향장기수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부산에서 온 학생기자가 돌아갈 때 차비로 2만원을 주어 준 것으로 되어있다. 가르쳐주고, 차비까지 보태줘서 돌려보냈다.

임여사는 자주 아프다. 몸이 쑤시고 무릎마디 관절이 아프고, 어지럼증도 있다. 병원에 갈 때는 늘 남편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온다. 노부부만 사는 집이라서, 임여사가 아프면 밥하고 반찬하고 집안 청소하는 일은 모두 남편의 몫이다. 2000년 11월24일 임여사가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다. 노부부만 살아도 임여사는 김치 욕심이 많다. 많이 담가서 며느리한테 나누어준다. 김장 담글 때도 며느리들은 다 모이라고 해서 함께 일한다. 김장 담그는 날 임여사는 또 병이 났다. 그래도 김장을 단념하지는 않는다. 그날의 메모는 다음과 같다.

11월24일

아침 9시40분이 지나서 머리가 빙빙 돌고 사지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웠다. 겨우 일어나 마루에 나가 앉았다. 비가 오락가락했다. 꼭 죽을 것만 같았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찬조연설도 거절했다. 간신히 일어나 김장 담글 계획을 세웠다. 배추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올랐다. 총각김치도 담글 작정이다. 계획을 세워주니까 남편이 모두 사왔다. 남편과 함께 배추를 다듬었다. 내일은 며느리들을 다 모이라고 했다. 남편은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 하자고 했다. 몸이 아파도 아직도 김장 욕심은 남아있다. 그러나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임여사는 그해 7순을 맞았다. 임여사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7순잔치를 했다. 집에서 떡을 하고 닭튀김을 만들었다. 임여사의 메모에 따르면 7순잔치에는 2백

20만원이 들었다. 그 이틀 전에 임여사는 경동시장에 가서 푸성귀를 사서 김치를 미리 담가두었다. 7순 잔치날의 메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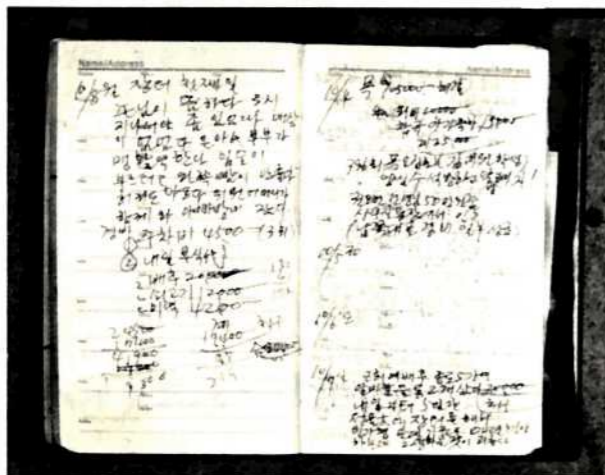
9월14일

70살이 되었다. 하하, 오래 살았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오늘의 이 임기란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50세를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 죽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녁 6시에 온 가족들이 다 모였다. 많은 덕담과 축복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많았다. 할렐루야, 아멘.

임여사의 속상하고 분한 날들은 한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마음이 상한 날들은 늦게 집에 돌아와 남편의 수발을 받으며 끄끙 앓는다. 임여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철벽과도 같은 제도와 법률과 고정관념이다. 속상한 날들의 메모는 너무나 많다. 그중 몇가지를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11월19일

오늘 법원에 갔다가, 한나라당 여자 당원들과 싸웠다. 우리보고 영원한 빨갱이란다. 저 고질적인 사고방식은 죽어야 끝나지 싶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목청 높여 외치고 다녀도 도저히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사고방식이 한심스럽다. 밤새 앓았다.



6월20일

종로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나 이 먹은 사람들은 통일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었고 젊은이 몇 명이 서명을 했다. 종로까지 가는데 길이 밀렸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며 돌아왔다.

7월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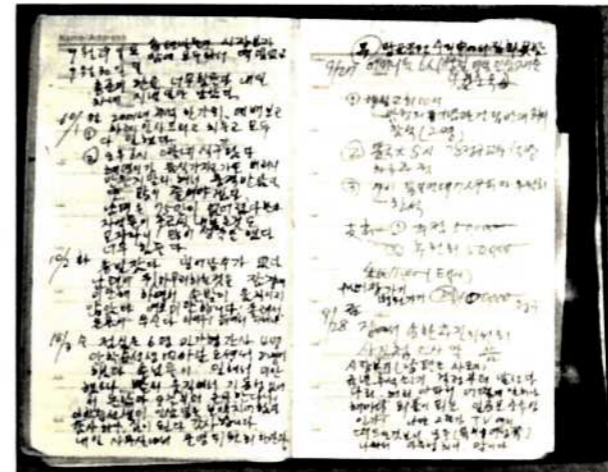
매항리 미군기지 철폐투쟁에 앞장섰던 사람 6명이 연행되었다. 남편을 줄라서 운전을 하게 했다. 매항리에 갔더니 경찰이 나를 막았다. 겨우 헤치고 들어가서 면회를 했다. 현장에 남아서 농성

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 30분이었다. 왜 이다지도 힘이 드는 것일까. 왜들 이러는 것일까.

2월28일

오후 2시에 319호 법정으로 병문이 재판 방청을 갔었다. 6년을 구형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6년이 지나면 저 젊은이도 늙고 힘없는 학생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앞길이 걱정이다. 병문이 어머니가 한사코 1만원을 주어서 귀하게 받았다.

그렇게 분하고 속상한 날들이 계속되어도 임여사는 그 상심을 다시 행동으로 바꾸어낸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분노다. 임여사의 행동은 그 사랑과 분노를 합쳐내는 것이다.



12월21일

오늘 2시에 의문사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에 갔었다. 왼쪽 오금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 송건호 사장님이 돌아가셨다. 진관스님과 함께 문상을 다녀왔다. 너무나 어지러워서 혼났다. 부축을 받으며 지하철을 오르내렸다. 눈이 내렸다. 눈 녹은 물이 시꺼맸다. 남편이 검은 눈을 걱정했다. 유가족 농성장에 성금 5만원을 냈고 송사장님 빈소에도 부의금 5만원을 냈다.

임여사는 올초 가족 19명과 함께 광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5박6일에 걸친 여행이었다. 이 여행에 관한 메모는, 임여사의 많은 메모들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대목이다.

오래 걷고 다리 아프고 힘들었다.

다 늙어가니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그저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이구 힘들어!

임여사의 메모는 삶의 구체성으로 충만하다. 거기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같은 회원들끼리 의견충돌로 말다툼한 이야기, 면담에 나온 정부관리들의 시큰둥하고도 건방진 낯빛, 민가협 활동으로 움직일 때 쓴 모든 경비, 지하철 요금, 함께 먹은 수박 값, 농성학생들에게 죽을 쑤어 먹이느라고 쓴 비용들이 구멍가게 장부처럼 낱알이 적혀있다. 싸우다 병들고 병에서 회복되어서 또 거리로 나가는 이야기들이 아무런 수사적 장치의 도움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적혀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구체성들은 사랑이 분노로 전환되고, 그 분노가 다시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의 증거들이다. 아, 우리는 삶의 구체성, 삶의 현실성 위에서만 사랑을 분노로 바꿀 수가 있다. 임여사의 메모를 다 읽은 후에 나는 남규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그러자 남규선은 깔깔 웃었다. 남규선의 웃음소리는 너 씹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메모를 돌려들릴 때, 나는 다시 임여사를 만나야 한다. 이 귀한 메모를 임여사는 “궁상맞는 물건”이라고 말한다. 메모를 빌려주셔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임여사께 감사드린다.

2) 민가협 20년, 내 삶속에 꽤 괜찮았다 <인권> 2005년 12월호

‘인권, 이 만난 사람’ 민가협 임기란 상임대표

민가협 20년, 내 삶속에 꽤 괜찮았다

글 안찬수 | 사진 김윤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결성된 것은 1985년 12월 12일의 일.

민가협의 홈페이지에는 그날의 일에 대해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다.

“첫 출발부터 수월하지 않았다. 민청련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현판식을 하려는데, 경찰이 빌딩 입구를 봉쇄하고 현판식을 막았다. 경찰에 항의하던 회원 20여 명이 중부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민가협 창립 당시 발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 개인의 석방을 애걸하기보다는 민주화의 대열에 함께 서는 것만이 고통 받는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임을 믿으며 민중, 민주, 민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적인 가족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민가협.”

이 땅의 양심을 향한 어머니들의 당당한 외침

그로부터 20년. 2005년 12월 12일이 민가협 20주년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스무 해 성상이 지났어도 ‘민가협 엄마’들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만 해도 그렇다.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민가협 엄마들은 땀별과 눈보라 속에서 계속해서 목요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만이 아니다. 지금도 민가협 엄마들은 모든 양심수들의 어머니가 되어 거리로 구치소로 교도소로 재판장으로 시위 현장으로 농성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내 자식이 석방되었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 땅에 양심수가 있는 한, 민가협 엄마들의 젖은 눈은 마를 날이 없다. 민가협 엄마의 눈으로 본 현실은 여전히

서글프고, 애통하다. 민가협 엄마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바꾸어야 할 게 많고, 이루어야 할 게 많다. 민가협 엄마들은 이 시대의 고난 한복판에 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안일무사함을 바라며 혼자 잘 먹고 혼자 똑똑한 것이 잘나 보이던 내가,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고 정의와 민주주의와 평화가 소중하며 인간 존중과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20년의 소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몸은 병도 들고 둔탁하지만 민가협 엄마로서의 활동은 값지고 내 삶속에서 꽤 괜찮았다고 여긴다.”

민가협 20년 세월을 이렇게 회고한 민가협 엄마, 임기란(75) 여사.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내 발걸음을 조심스럽고 무겁고 부끄러웠다.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어머니’에게 떠맡긴 것만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민가협 엄마들은 이제 늙었고,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고 있다. 임기란 여사를 만나러 가기 전날에도 권운상 씨의 엄마 조연행(안나) 여사가 저세상으로 떠났다. 문상 왔던 다른 민가협 엄마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지난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펼쳤던 두 달간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때 차가운 칼바람을 맞아 병을 얻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건대병원 8층의 한 병실. 임 여사를 보니, 부스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강건함이 느껴졌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해요. 뚜렷한 병명을 못 찾고 있는 거지요.”

옆에서 간병하는 따님 박현숙씨가 이렇게 말한다. 의사 선생님들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한숨과 주름과 고통이 켜켜이 쌓여 가슴이 숲검정이 되어버린 병, 이 시대의 모순에 굼긴 상처 때문에 생긴 병이 어찌 엑스레이 찍는다고 눈에 보이겠는가. 주사 몇 대 놓는다고 낳겠는가.

“의사들은 이해 못해요. 의사들이 엄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박현숙 씨는 ‘어머니’의 병을 20년 동안 한시도 마음 놓지 않고 싸워온 이의 ‘직업병’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병은 시대가 나온 ‘직업병’

“지난 10월, 4박5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아리랑 축제 때 원로대표라는 자격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공복저혈당으로 한 달여 괴로워하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머릿속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병실의 다른 환자분들께 폐가 될까 봐 자리를 옮기면서 임 여사는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임기란 여사가 민가협 엄마가 된 것은 1985년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이던 막내아들 박신철 씨가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되면서부터다. ‘막내아들이 구속되자 임 여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아들 면회도 못갈 정도로 몸이 아프고 징징 울면서 끄끙 앓는 소리만 내는 쓸모없는 어미였죠.”

그리고 이듬해 봄 박신철 씨가 사라졌는데,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도 전날까지만 봤다고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누군가 까만 차에 싣고 가는 걸 보았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일주일쯤 지난 뒤, 서대문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이가 종이쪽지를 가지고 나와 전화를 해서야 소재를 알 수 있었다. 경찰서에 가서 찾으러 오니 처음에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신철아, 신철아” 하고 큰소리를 치니 저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그 뒤 박종철 사건이 났는데, 그때 신철이도 못 찾았으면 어찌 됐을지 몰랐다”는 것.



민가협 20년, 내 삶속에 꽤 괜찮았다

“신철이가 다시 잡혀 갔을 때는 이 어미도 달라지고 눈과 귀도 열려서, 어미의 힘으로 죄 없는 우리 자식들을 구하자고 하면서 많은 어머니 동지들을 구치소, 경찰서에서 만나 스스로 투쟁하는 엄마투사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했지. 순전히 모성본능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임 여사는 다른 민가협 엄마들을 만나 서로 뭉치면서 자식들이 맞서고자 했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차츰 눈을 뜨게 된다.

“우리한테는 자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식이라는 공통분모. 그리고 보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이 모두 어머니의 자식 아니던가. 민가협 엄마들은 하나가 되어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 자식만 보였지만 남의 자식도 보이고 그 자식을 둔 부모들의 아픔도 보이고 부모의 아픔이 보이니 세상의 아픔이 보였다.

“자식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거듭해서 묻고, 차츰 눈을 뜨게 되었던 거지요.”

“물론 처음에는 모두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자식하고 인연을 끊겠다고 한 분들도 있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고, 자식이 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엄마들의 결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스무 명, 서른 명쯤 모이지만, 때가 되면 마흔 명도 모이고 쉰 명도 모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임기란 여사를 비롯해서 민가협 엄마들은 돈도 들고 병도 드는 이 싸움에 동참했다. 자식들의 투쟁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부터는 누구랄 것 없이 힘을 모아 싸웠다. “자식으로 인해 깨달은 소중한 가치가 나의 공부가 되고 지식이 되어 나의 신념이 되고 삶이 되고 말았어요.”

비록 자식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지만 세상의 어둠을 보는 통찰력만큼은 자식 못지않았다. 특히 임기란 여사는 스무 해 동안 민가협의 상임의장을 네 번이나 맡았다. 말이 네 번이지, 20년 동안 민가협을 이끌어온 핵심 중의 핵심이다.

자식의 아픔을 넘어 세상의 고통을 넘어

특히 임기란 여사는 스무 해 동안 민가협의 최전선에서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 사람이 양심수이건, 동성애자이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든, 장애인이든, 이주노동자 이든, 사람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임기란 여사가 보기에 “우리의 뿌리는 사람”이고 “내 자식남의 자식 구별 없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자식”이라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구속자가 속출했다. 교도소 내에 폭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양심수들이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면 민가협 엄마들도 교도소 밖에서 철야농성을 하기도 했다. 임기란 여사는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특공대’ 마냥 돌이닥쳐 교도소 밖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어요.”

그럴 때 민가협 엄마들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은 적도 적지 않았다. 가혹한 탄압에 맞서 몸 부딪히며 정말 처절한 싸움을 통해 민가협 엄마들은 스스로 ‘엄마 투사’가 되어 갔다. 1987년 6월 항쟁 때 ‘고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에서 민가협 엄마들은 추모행렬의 맨 앞에는 대열을 이끌었다. 삼베수건을 쓴 엄마들의 행렬은 민주화 투쟁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다.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야인사들의 죽음 앞에 선 어머니의 분노와 눈물과 사랑.

민가협 엄마들의 투쟁은 문민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군사독재 정권이 종식되면 양심수가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가협 엄마들은 1993년

부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시작했다. 죽음의 시대를 상징하던 삼베 수건이 인권 세상을 꿈꾸는 민가협 엄마들의 보랏빛 수건으로 바뀌었다.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 속의 임기란 여사는 언제나 보랏빛수건을 쓰고 있다.

스무 해의 과정 속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어나고 여쭙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나섰던 것.” 임기란 여사가 무엇보다도 보람 있었다고 말한 것은 양심수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이었다.

“지금은 보안법 관련자는 소수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나 농민이 60~70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1100명 정도나 돼요.”

문민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되었지만, 양심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그런 양심수 가운데 장기수들이 있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위해 민가협은 석방운동을 전개했다. 이인모 씨의 송환 34년 수감, 1993년 , 김선명 씨의 석방 45년 수감, 1995년 , 사상전향제도 폐지 1998년 그리고 마침내 1999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장기수가 풀려나기까지는 민가협 엄마들의 힘이 컸다.

민가협 엄마들의 투쟁 가운데 하나는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인권위 분들이 왜 혼신을 기울여 인권을 지켜 내지 않는가.” 인권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애정을 지니고 있는 임기란 여사의 따끔한 말씀이다.

“문제를 쌓아 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인권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밤을 새워 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인권(人權)이라는 말,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 그것이 인권 옹호지. 법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해요.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눈에 확 띄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해요.”

‘민가협 엄마’ 그 이름으로 갖는 보람과 금지

이제 늙고 병이 들어 괴로우신데,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무엇을 꼽으시느냐고 또 여쭙었다. “두 가지 있지요.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이야기로 돌아갔다.

“국민의 반 이상이 보수당의 감언이설에 덜 깨어 있는 상태라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개혁입법을 방치하면 안 돼요. 새로 국회의원이 된 이들도 청년의 기개가 사라지고 그냥 당리당략만 생각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생각만 있다면 왜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겠어요. 어떤 틀에 익숙

해져서 무슨 일 하는 척만 하면 이 나라 정말 발전할 수 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길을 열어 나가야지요. 아무리 해도 놓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사안이 큰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해요.”

임기란 여사, 고통 받고 있는 양심수들과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을 모두 마음속의 자식으로 거두어들인 민가협 엄마. 몸은 비록 늙고 지쳤지만, 마음만은 대나무처럼 꼳꼳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건 3%밖에 안 되는 소금 때문이라고 했던가. 민가협 엄마들의 피땀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인권에 눈뜨게 되었을까. 임기란 여사를 비롯해서 민가협 엄마들은 우리의 큰 자랑거리다.

“돌이켜 보면 힘든 세월이었고, 그 세월 속에서 50대 중반의 어머니는 어느덧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70대 중반의, 몸이 부자유스럽고 골골하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민가협 엄마’ 그 이름에 우리는 보람과 긍지를 가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싸웁니다.”

3) ‘민가협 20년’ 함께 걸은 임기란씨
한겨레 신문 2005년 12월 9일, 유선희 기자



“차가운 거리에서 보낸 20년이었지만, 우리 엄마들의 분노는 뜨거웠고,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50대 중반, 2남3녀를 다 키우고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자’던 한 어머니의 인생이 바뀐 것은 1984년이였다. 서울대에 다니던 막내아들 박신철(40·회사원)씨가 전두환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민정당사를 점거해 농성하다 구속됐다. “처음엔 막내에게 ‘나쁜 놈’이라고 했지. 그 땐 학생운동인지 뭔지 알게 뭐였겠어!”

‘내 아들’에서 ‘모두의 아들’로

아들 면회하러 구치소에 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고, 이듬해인 85년 모임을 만들었다. 그 이름은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을 관통하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된 ‘민가협’은 이렇게 태어났다.

12일이 바로 탄생 20돌이 되는 날이다. 50대 나이에 참여했던 그 ‘어머니’ 임기란(76)씨는 이제 칠순 후반의 ‘할머니’로 변했다. 임씨의 지난 20년 삶은 곧 민가협 20년사였다. 창립 초기부터 참여해 네 차례 상임의장을 맡으며 민가협 결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이 군사정권이 두 번 지나갔고, 민가협도 애초 ‘내 아들·딸을 살리는 모임’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딸을 살리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한 명씩 소리 지르면 경찰들이 발길질하고 방패로 찍고 그랬어. 내 아들 내 딸 살리겠다고 함께 나서게 된 거지!”

쌀 된장 이고 지고 시위대 응원

임씨가 ‘열혈 투사’가 된 것은 86년이였다.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했는데, 정권

에선 '빨갱이, 좌경 용공'으로 몰아가고 ..., 그 때 결심했어. 애들이 세상을 바꾸려다 죽는데, 엄마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후 벌어진 수많은 굶직한 현대사의 현장마다 임씨는 있었다. "87년 6월 항쟁 때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시위단 먹인다고 쌀 두 가마니, 멸치, 된장, 오이지를 자전거에 싣고 봉천동에서 명동성당까지 갔어. 다리가 아파 질질 끌면서 들머리를 올라서는데 수백 명의 시위대가 눈에 들어왔어. 세상이 바뀐다는 기대에 눈물이 나더라고."

이한열씨가 숨졌을 때는 장지인 광주 망월동까지 따라가 시위대를 응원했다. 권인숙씨를 성고문한 경찰 문귀동씨 재판 때는 밤새 100인분의 국밥을 준비해 방청객들에게 나눠줬다. 응원 갔다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일도 부지기수다. 93년부터는 '고난 속의 희망'을 상징하는 보라색 수건을 두르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도 시작했다. "양심수가 뭐냐고? 유식하게는 잘 몰라. 자기 신념을 위해, 민족과 통일을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갇히거나 자유를 잃은 우리 아들들이 다 양심수지!"

20년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다. 민가협이 힘을 보태 이끌어낸 변화들이다. 95년에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석방됐고, 2000년 9월에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고문해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한 함주명씨의 재심을 추진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고, 자식들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386세대들도 국회의원이 됐다. 목요시위도 어느덧 600회를 앞두고 있다.

보안법 서슬 퍼런데, 갈길 멀었어

나이 탓에, 그리고 바쁘게 뛰어다닌 탓에 임씨의 건강은 예전 같지 못하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민가협도 동창회 하듯 모여 옛날 얘기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갈 길이 멀어. 아직도 국가보안법 서슬이 퍼렇잖아. 죽기 전까지는 싸워야지!"

**4) KBS1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2005년 12월 12일 진행자: 박인규**



12월 12일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신군부의 쿠데타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인 1985년 12월 12일은 바로 이들 신군부가 장악한 권력과 대결한 어머니들의 운동이 새롭게 결집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줄여서 <민가협>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발족한 것이죠.

오늘은 바로 민가협 출범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초대 회장이자 지금은 고문을 맡고 계신 임기란 어머니 모시고 민가협이 지나온 날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회장 임기란 여사입니다.

임기란 여사는 민가협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남 3녀 중 서울대에 다니던 막내아들 박신철씨가 1984년 전두환 정권 퇴진 농성에 참가해 구속된 이후, 미문화원 사건,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등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구속된 학생들의 가족들과 뜻을 모아 이듬해인 1985년 12월 12일 민가협을 발족합니다. 임기란 여사는 초대회장으로 창립초기부터 참여해 20년 동안 네 차례 상임의장을 맡았고, 현재는 민가협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임기란 여사: 안녕하세요?
MC 박인규: 보통 상임의장 임기란여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임기란 여사: 괜찮습니다. 할머니죠. 엄격히 말하면..

MC 박인규: 85년도에 민가협이 출범할 때는 50대 후반의 어머니이셨는데, 민가협도 이제 성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민가협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요. 2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모로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기란 여사: 어머니들이 뜻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50대 중반이었는데, 어느덧 70대 후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MC 박인규: 우선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임기란 어머니께서는 민가협을 발족하는데 참여하시게 됐는지, 85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민가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죠?

임기란 여사: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식들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우리 자식은 죄가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국에서 관계자들이 “빨갱이다, 당신의 아이들은 위험분자이다.” 이렇게 할 때는 부모들이 앞이 캄캄해 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면서 자식들이 감옥에 갔을 때에 뒷바라지나 하자..라고 했는데, 차차 재판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자식은 투철한 애국심에서 참가하게 된 것을 알고 어머니들이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우리 자식들을 우리 어머니들의 힘으로 구출하자는 각오가 나날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저의 자식도 두 번째 구속이었는데요. 구속되고 나서 50여일 동안 면회가 안 되었지만 매일 구치소마당에서 안타깝게 면회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많은 각 대학의 어머니들과 함께 하면서 어머니들이, ‘내 자식 다 죽인다’고 아우성 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 아닌 협상도 하고, 구치소 앞에 모여서 농성도 하게 되고, 우리 편에서 있는 인권단체, 종교단체들과 의논해서 자식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지금 생각해 보면 인권이라고 했는데, 그 때 어머니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모성애에 가깝도록 뛰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인지도 모르고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눈에 불을 쬐고 쫓아다닌 것이 어머니들의 운동에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MC 박인규: 그런 어머니들이 모여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를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는 대략 몇 분 정도가 모이시고, 모이신 분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임기란 여사: 그 때는 한 단체가 아니고,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사건이라든지, 가락동에 있는 민정당사 점거 사건이라든지, 많은 구속자가 양심수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가족들, 대학생가족협의회..이런 노동운동가족협의회, 저명한 인사 문

익환목사라든지, 실제로 사회운동을 하던 민청련 같은 구속자 가족 협의회..협의회들이 합쳐져서 실천가족운동협의회라고 하면서 헌판식을 하자니, 그 때 그 자리에 저는 없었지만 나중에 들어 보니, 원천봉쇄를 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문 앞을 몇 줄 이상으로 전경들이 막고 출범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MC 박인규: 올해가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0일날 인권콘서트를 하셨죠? 그 이름이 ‘보랏빛 수건’이라고 하던데요? 그 ‘보랏빛 수건’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그 ‘보랏빛 수건’에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까?

임기란 여사: 네. 이 보랏빛이라는 색깔의 뜻을 대략적으로 담았고요. 그 전에 치마저고리를 보라색으로 입고, 70년대 말에 민청련이라든지, 이희호 여사라든지, 문익환 목사의 사모님이라든지, 많은 가족분들이 보랏빛 치마저고리를 해 입고 한 것도 있지만..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이 보라색은 탄압, 불안, 평화의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수건을 만들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MC 박인규: ‘고난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임기란 여사: 네.

MC 박인규: 저도 사실은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에 계신 형사 분이 저의 아버님께 오셔서 ‘단속 잘 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막내아드님이시죠? 막내아드님이 데모를 하기 전에는 데모를 말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나요?

임기란 여사: 어리석게도 전혀 몰랐고, 저는 저대로 YWCA봉사활동을 하느라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줄로만 알았고..첫 번째 민정당 가락동 연수원에 점거했다는 소리만..1차 구속됐을 때 처음으로 막내아들이 학생운동을 하는 걸 알았죠. 그 때는 학생운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빨갱이 됐다.’라는 당국의 선전에 너무나 불안해했고 아들이 원망스러웠죠.

MC 박인규: 아들이 원망스러우셨다?

임기란 여사: 네. ‘왜 이러나..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86년 5월달에 다시 학생들 사건에 연루돼서 일주일 동안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 때는 무언가 불안하고, 없어진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요. 나중에 같이 유치장에 있던 사람의 제보로 알게 됐는데, 제 아들이 남양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서대문 경찰서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때는 그것도 아주 비밀이었거든요. 고문으로 다 죽어간다는 제보를 받고 놀라서.. 그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

식들을 이해하고,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식을 우리가 구하자..내가 자식을 구하자..그래서 나중에는 내 자식이 다 우리 자식이 되고, 아들, 딸이 남의 자식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MC 박인규: 문제의 막내 아드님은 그 뒤에 석방되셔서 지금은 생활인으로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임기란 여사: 지금은 평범한 외국계열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이고요.

MC 박인규: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아드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아들은 잘 되었으니까..'하면서 그런 활동을 안 하시게 될 거 같은데 그 뒤에 20년동안 계속 이 활동을 하시게 된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 보는 겁니다.

임기란 여사: 제 아들은 나온 후에도 가출해서 노동 운동을 했고요. 대학도 8년만에 졸업하고, 후에 결혼도 했지만은 그 동안에 자식이 없는 사이에 민가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또 재수감이 될 지도 모르겠고, 또 눈물을 흘리고 찾아오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MC 박인규: 다른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도와줘야겠다?

임기란 여사: 네. 학생운동 차원에서 잡혀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법률 안내도하고, 투쟁하는데 함께 가다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서 10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를 떠나서..차차 눈을, 귀를 넓게 잡아서 여러 가지 나라와 겨레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운동하는 곳에 함께 하면서 연대 투쟁도 하게 되고 어머니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지요.

MC 박인규: 자신의 자식을 도우면서 배우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또 다른 어머니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민가협 활동을 하신 거군요?

임기란 여사: 네.

MC 박인규: 마침 12월 12일이 창립 20주년이기도 하지만, 인권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조영래 변호사께서 돌아가신 지 1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가협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재야인사들과도 협력도 있었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임기란 여사: 지금까지 거의 모두 가족 같고, 다 동지들이죠.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님은 젊은 나이에 참 안됐습니다만, 학생들 변호를 많이 맡아 주셨어요. 그렇게 황인철 변호사님도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학생들을 변호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사실 자신의 영리를 따지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정의 편에서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또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민가협에 초대 회장도 하셨고, 지금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과 교분이 있고, 주로 변호사님들 중에 아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도 투쟁하는 연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 분들과는..하다못해 노동운동 하는 이수호씨, 이용득씨등등 노동운동을 하는 장 되시는 분들도 우리 어머니들을 참 사랑해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MC 박인규: 김영삼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앞에서 끌어오신 정치지도자들이신데요. 그 분들과 민가협과는 연관이 있었습니까?

임기란 여사: 양 김씨께서 주도하는 민주협에..그 곳은 어머니 300명들이 모여서 매일 회의하고 울고불고 하던 곳인데요. 그 당시 김영삼씨는 별로..엄마들이 적대시는 안했더라도..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은 김대중씨였어요. 그 분은 자신이 양심수였었고, 사형선고까지 받으신 분이어서 그런지..우리가 교도소의 비리를 밤새 차를 타고 와서 동교동에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애걸하다시피하면서, 빨리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 아이들이 위험하다..하면서 폐를 끼친 적이 많습니다. 집권하고 나서도 99년도, 2000년도에 남아 있는 장기수 수십 명을 2000년도에 다 비전향 장기수로 석방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6.15후에 석 달도 안 되어서 63명을 1차 송환이라고 해서 갔었죠.

MC 박인규: 20년 동안 민가협 활동을 계속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임기란 여사: 대체적으로요. 저희들은 자식들이 자꾸 죽더라고요. 91년도까지..강경대까지 12명이 분신자살해서 매일 울면서 눈가가 짓무르도록..장례를 함께 하면서 우면서..아이들이 죽지 말고 싸웠으면..그런 걸로 서운했었고..명동성당 앞에서 양심수들 전원 석방하라고 외칠 때, 서울대 84학번 조석만씨도 비수를 배에 꽂으면서 구호를 외치고 죽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었다든지,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떠날 때 너무나 슬펐고 남의 일 같지 않고 매일 울면서 쫓아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장을 할 때는 유가협, 민가협이 하나로 합해 있다가 2~3년 후에 유가협이 갈라져서 지금은 따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때는 어머니들이나 가족들이 매일 길가에서 최루가스를 마시면서 넘어지면서 같이 다녔죠.

MC 박인규: 지금 20년이 지나서 사회도 많이 민주화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도 민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란 여사: 필요를 따진다면,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열 손가락에도 안 들어요. 주로 한총련 관련해서 수배를 내리면 국가보안법이 되고, 이

런 분들과 강태훈선생.. 민주노동당 고문하신 석방이 안되고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대개는 노동하다가 시위현장에서 잡힌 분들이 많고, 철거민들이 한 30명 되고요. 농민들도 있었지만 지금 농민들은 대부분 나오셨어요. 대략 70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지만 그래도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집권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의 엄마들은 꼭 이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심수들이 하나 둘씩 석방 될 때는, 늘 기뻐하고 지금도 나오면 가족들이 떡을 해서 나눠먹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처음엔 구속된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지만 지금은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도 하시게 된 거군요?

임기란 여사: 그렇게 된 거죠. 아픔을 함께 하고 있어요.

MC 박인규: 민가협이 20년이 지나면서, 민가협 어머님들이 돌봐줬던 그 아들들이 지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로 386세대라고 하는데 요즘 정치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임기란 여사: 바로 제 자식들 애기인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 때 당시 길에서 자식들과 함께 할 때는 "너희들이 커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자식들이 국회 입법 하는 곳에 10명 이상 되기도 했는데, 한 마디로 해서 학생시대에 비해서 함성과 판단력과 용맹이 부족한 것 같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디만,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기성세대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그 사람들이 386세대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역사에 오점이 남기 때문에 지금 386세대에 대한 걱정도 앞서지만 좀 더 용감하게 학생시대에 외쳤던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386세대 중에서 이름도 있고 권세자리에 가 있는 자식들도 있고, 또 평범하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꼭 이름을 알려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잘사는 것 같습니까?

임기란 여사: 우리의 자식이 양심수가 되기 전에는 어떤 엄마들이든 자식이 잘 되지 말라는..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많은 국민들 속에 지도자만 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아니고, 사람의 권리를 옳게 행사할 수 있는 평범한 국민.. 보통 민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옳게 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군인들처럼 독재를 하거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던

인혁당처럼 소름끼치는.. 자신의 직권연장을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18시간 만에 사형을 시키는 이런 지도자는 진짜 태어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MC 박인규: 민가협을 하시기 전에도 YWCA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민가협 활동을 하시면서 자식들의 어려움과 부딪치다 보면 민가협을 하시기 전에 알던 세상과 민가협을 하시고 나서 알게 되신 세상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임기란 여사: 많이 있죠. 편안하지 않는 세상, 억울한 세상,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분들, 끝까지 우리 힘으로 도와줘서 이 분들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MC 박인규: 요즘은 상당히 민주화가 되어서 데모를 하다가 구속되는 대학생들은 거의 없대시피 됐거든요. 원래 민가협이라는 곳이 데모를 하다가 구속당한 자식들을 위해서 모이신 건데 앞으로도 민가협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겠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 같은데요?

임기란 여사: 저만 70대 중반이 된 것은 아니고, 똑같이 나이를 먹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단체는 일종의 기동부대와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20년 세월동안 민주화운동 역사 장막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활동가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장애우까지 여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인권여성단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단체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C 박인규: 자기 자식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자제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임기란 여사: 3녀 2남입니다. 딸들을 먼저 낳았기 때문이에요.

MC 박인규: 다들 요즘에는 행복하게 사시죠?

임기란 여사: 그런대로 자기 몫들을 하고 있지만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MC 박인규: 사위 분 중에는 유명하신 분도 한 분 계시다고 하던데요?(웃음) 괜찮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웃음)

임기란 여사: (웃음) 배철수씨가 우리 셋째 사위입니다. (웃음)

MC 박인규: 예전에 활주로를 하시고 요즘에는 DJ도 하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임기란 여사: 네. 7080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음악캠프도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MC 박인규: 이제 우리 손자들이 예전에 민가협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의 그 나이들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손자들이 젊었을 때와 자녀분들이 젊었을 때와 다른 것 같으세요?

임기란 여사: 사실은 우리를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라고 해야 하는 연령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 앞에서 장터를 할 때마다 “어머니, 뭐 주세요.” 할 때는 귀엽기도 하고요. 순진하게 “민가협이 뭘니까? 뭐하는 곳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격세지감도 느끼고요.

MC 박인규: 지금 학생들은 민가협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군요?

임기란 여사: 네. 민주화 운동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 수 없죠. 20년 세월이면 이 급변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MC 박인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 수도 있겠죠?

임기란 여사: 그렇죠.

MC 박인규: 이제 연세도 70대 후반이 되셨고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민가협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임기란 여사: 글썩요. 제가 필요하다면 인원도 되어 드리고..머릿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많이 참가하는 것어요. 머릿수라도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아픈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절도 좋지 않고요. 재작년에는 척추수술도 해서요. 지금도 건강하다면 간판이 붙어 있는 한 함께 하고 싶습니다.

MC 박인규: 어머니께서는 그 동안 활동하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안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건강도 생각하시는 것이 자녀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기란 여사: 감사합니다.(웃음)

5) <경향과의 만남> 민가협 '목요집회' 700회 임기란 前 상임의장
경향신문 2008년 3월 17일, 김세구/김다슬 기자



“좌파가 매국을 했나, 광주학살을 했나, 차떼기를 했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서울 탑골공원으로 모인다.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열리는 목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목요집회는 지난주 700회를 맞았다. 1993년 9월 첫 집회 이후 그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 민가협은 군사정권의 폭압에 저항했던 학생과 노동자 등 수많은 청년들이 무차별 감옥으로 끌려가는 데 맞서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85년 탄생시켰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목요집회’를 시작했다. 민가협의 대모인 임기란 전 상임의장(78)은 암울한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여 년 동안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양심수들의 석방과 명예회복,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아직은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 대모’로 불리는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78)은 지난 14일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자유로운 이념과 사상을 갖고 살수 있는 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민가협이 출범하게 된 계기는요.

“84년까지 저도 평범한 대학생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제학과 83학번이던 막내아들 신철이가 감옥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소유예로 바로 나왔는데 어느 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간 후로 아무 소식 없이 귀가하지 않는 거예요. 1주일 동안 길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유치장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범을 잡을 때까지 5개월간은 면회도 못하게 했어요. 나처럼 숙절없이 아이를 주야장천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는 걸 알았죠. 대학생들을

800여명 잡아갔으니 엄마들이 안 모일 수가 없잖아요. 애들을 지키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85년에 민가협을 만들었지요.”

-93년에 시작한 목요집회가 지난주에 700회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문민정부에 실망해서 시작했어요.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양심수를 부정해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허락도 안 해주고, 집시법 위반으로 걸리고 그랬어요. 한 주도 거르지 않았습시다.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는 바람에 우리만 공원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도 선거 때나 이슈가 있으면 반대쪽 사람들이 와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음료수를 주며 힘내라는 사람도 있지요.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난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지난주 700회 집회 때, 구속된 이정훈씨 부인 구선옥씨가 그렇게 울었잖아요. 아직도 우는 사람이 많아요.”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인데요.

“민가협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87년은 잊을 수 없는 해예요. 종철(박종철)이가 물고문당해서 죽고, 한열(이한열)이가 최루탄 맞아 죽고..., 한열이 장례식 때는 삼베수건 쓰고 애들이랑 같이 거리에 나섰어요. 그렇게 6월이 지나고 민주화가 왔나 했더니 아니더군요. 애들을 감옥에 몰아넣어서 그 이듬해에는 1000명이 넘게 갇혔어요. 그러는 동안에 명동성당에서 며칠씩 단식하고, 애들 먹이려고 밥이니, 무국이니 끓여 나르고,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과 고문경찰 이근안을 잡겠다고 다니고 숨 가쁜 세월이었어요. 비전향장기수, 조작 간첩 같은 장기수 문제도 제기했지요. 90년대에 국가보안법 없애라고 그렇게 일 많이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양심수가 끊임없이 들어가네요. 국가보안법도 여전하고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을 텐데요.

“말도 못해요. 우리 아들은 고문 받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아들 친구였던 세진이(김세진), 재호(이재호)는 다 먼저 보냈어요. 서울대 84학번으로 운동하던 최우혁이는 제적당하고 입대하더니 거기서 죽었는데 결국 어머니도 아들 따라서 자살해버렸어요. 잊을 수 없는 게 화학과 84학번이던 조성만이 죽었던 88년 5월이에요. 그때 양심수가 1600명을 넘어섰어요. 소복하고 명동성당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복치고 농성하고 있었는데 저쪽 옥상에서 뭐가 툭 떨어져요. 성만이가 자기 배를 찌르고 투신했어요. 빛이 번쩍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고문경찰 이근안을 잡으려고 현상금까지 걸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들 재판 때 보니까 물속에 15번 집어넣었다고 합디다. 검찰도 나쁘지만 경찰이 초동수사 할 때 계급 올라가려고 살인적인 고문을 했어요. 애들,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침대에 묶어 전기고문 당하고, 구정물에 집어넣고 그렇게 혹독하게 했답니다. 그중 가장 악독한 사람이 이근안이에요. 89년에 이근안이 안 잡힌다니까 우리가 아예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근안은 결국 자수했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사람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가장 절망했을 때는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첫째죠. 국보법도 없어지고 양심수들 다 나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가 무산됐을 때도 힘들었어요. 기대했던 김영삼 대통령, 외국 가서는 양심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04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은 녹슨 칼이니까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을 때는 정말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론까지 국보법 폐지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입법까지 못 가고... 연말 31일까지 여의도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열린우리당에 크게 실망했지요. 최근에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 얘기만 나오지 인권에 대한 말이 없어 절망스럽습니다.”

-성과나 보람있는 일들도 있었지요.

“60년대 말에는 10~20대 애들을 어마어마한 국사범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가뒀다는데 사진을 구할 방도가 없어서 미대생들 불러서 그리게 했어요. 안학섭 선생은 민간인을 41년 만에 처음봤다고 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이 사람들에게 늦게나마 빛 보게 해줬던 게 기억에 많이 남죠.”

-2000년대에는 새로운 인권 이슈가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20년 가까이 인권 콘서트를 하면서 이익금은 양심수 석방운동에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양심수나 국보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소수자들 문제도 함께 얘기해요.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애들처럼 부당하게 차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에 절망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행복과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잖아요. 인권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돼요. 있는 사람 잘 사는 나라 만들고, 경제 논리로 포장해 일그러진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잘 살게 되고 좋은 세상이 올까요. 물론 아니

죠. 요즘 안상수씨가 좌파들이 발목잡고 있다고 하대요. 우리끼리 '검사답다'고 했지요. 좌파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광주 학살을 했습니까, 차떼기를 했습니까. 자유롭게 이념·사상 갖고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옳게 벌고, 옳게 살고 사랑으로 엮어서 불우한 사람들도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6) "다시는 이 콘서트에 서지 않으리라"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 11일자 김소라/선대식 기자



매년 12월에 열리는 인권콘서트 그리고 '보랏빛 수건으로 기억되는 목요집회' 현장에는 '인권운동의 왕엄마'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있다.

85년 민가협을 설립한 후 20여 년간 소외 계층의 인권 보호에 힘쓴 임 전 상임의장은 지난 8일 세계 인권 선언 58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인권콘서트가 끝나고 인근 식당에서 임기란 전 상임의장을 만났다.

- 12월 8일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감옥에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열심히 하신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제가 나이 때문에 민가협 왕엄마입니다. 올해 나이가 77살인데, 이 중 제일 많죠. 고생하는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받았습시다."

- 수상 여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던데요.

"정말 쑥스럽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식전 행사 때 장애인 인권 운동하는 이들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들을 다 끌어내고 시상식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 그릇된 정책사가 한순간에 보여지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아직도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제가 인권상을 받다니..."

- 지나간 시간들이 많이 생각나겠어요.

"지난날을 회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 그 안쓰러운 모습들이 또렷이 생각나 가슴이 아파요. 20년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민가협 우리 어머님들은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이 양심수인 어머님들이 거의 다예요.

학생들이 옳은 말을 하고도 진압봉에 맞아 피를 쏟고 끌려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우리 어머니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12월 12일 민가협을 설립했고 20년이 넘도록 우리 학생들 혹은 차별받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씨가 복송된 일도 생각나요. 특히 제가 이북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어머니와 극적 재회한 일화는 잊을 수가 없어요. 김선명씨의 어머니는 아들만 그리다가 결국 김선명씨와 재회하고 열흘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끈끈한 모정을 잊을 수 없죠."

슬펐던 일은 학교비리에 대해 운동을 펼치던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백골부대에 맞아 쓰러졌을 때였어요. 저희는 그 때 분노를 참을 수 없었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거든요."

- 올해 양심수가 한명 더 늘었습니다.

"김지태 이장은 50년 동안 농사짓고 살았던 땅을 지키겠다는 소시민입니다. 김지태 이장뿐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신 대추리 주민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소금벌인 곳을 땅으로 일구고 농사를 짓기 까지 그 고생은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김지태씨를 면회 갔었어요. 많이 야위었던군요. 김지태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너무나 약하신데... 모두들 대추리 문제를 놓고 걱정들입니다. 대추리 농민 구속자 조현수씨의 석방운동을 우리 민가협에서 펼쳤습니다. 지난봄에 석방되었고요. 이처럼 김지태 이장의 석방과 대추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맞는 18번째 인권콘서트네요.

"해가 갈수록 인권 콘서트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분위기도 좀 쌀렁했잖아요. 예년 같지가 않아요. 표 팔러 다니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주질 않아서 말이죠. 그래도 가수 전인권·정태춘·김종서 같은 분은 인권을 위해 무료로 출연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인권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의 1/10을 우리 민가협 활동비로 써요. 그런데 이번 콘서트는 수익금이 얼마 안돼요. 무대 장치 설치하는데 쓰인 비용 빼면 적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인권콘서트가 그만 열리길 바라더라고요.

"예년에 비해 인권 문제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변화될 것이 많아요. 오늘 출연자들이 많이 이야기 하던데, 이런 콘서트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인권을 외칠 필요가 없는, 인권이 당연한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 추운 날씨에 활동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2시에 우리 민가협의 집회가 있어요. 300명의 민가협 회원 중 벌써 11명이 몸이 아파 활동을 못하세요. 저 또한 지금 척추수술의 후유증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목요일집회, 인권콘서트는 꼭 합니다. 계속해 이어갈 것입니다. 양심수가 없어지고 소외계층의 억울함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7) 서울신문 기사: "내가 죽더라도 양심수들 석방됐으면..."

서울신문 2006년 12월 29일, 임일영 기자

하룻밤 사이 수은주가 10도 이상 뚝 떨어진 28일 낮. 서울 종로 2가 탑골공원 앞으로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20여명의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피켓을 들고 모여 들었다. 지난 1993년 9월 첫걸음을 내디딘 뒤 목요일마다 이어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646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목요일집회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60~70대의 고령이어서 매서워진 칼바람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추위 탓에 입 주위는 썩썩 얼어붙고 손발은 오들오들 떨려왔다.

바람마저 바닥에 깔아놓은 집회 선전물을 번번이 날려 보내는 등 심술을 부렸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지금도 감옥에서 떨고 있을 1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을 생각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미영 간사의 모두 발언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탑골공원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대부분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종종걸음을 재촉했지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호소하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목소리는 떨릴지언정 멈추지 않았다.

플래카드를 맞잡고 서있는 어머니들 곁에 유일하게 앉아 있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로부터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임기란(76) 전 민가협 상임의장이었다. 1985년 학생운동을 하던 막내아들이 민정당사 연수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된 뒤 양심수 가족을 지원하는 민가협의 창립 멤버로 인권운동에 뛰어든 임씨는 20여년 동안 양심수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권리 찾기 등에 힘써온 양심수의 대모다. 퇴행성관절염을 앓던 임씨는 2003년엔 척추 연골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수술과 재활기간 서너달,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했던 때를 빼면 언제나 목요일집회를 지켰다.

집회를 마친 뒤 탑골공원 뒷골목 식당에선 떡과 설렁탕을 곁들인 민가협 회원들의 조출한 망년회 겸 뒤풀이가 이어졌다. 임씨는 "(올해) 마지막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저 13년이 언제 흘렀나 싶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올들어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려 답답했어. 특히 대추리에 대한 정부 대처와 양심수 석방이 이전 정부보다 되레 적어 노무현 정권에 실망이 크지."라며 아쉬워했다.

일단 말문이 트이자 임씨의 날카로운 비판은 계속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평택 대추리 문제, 조작간첩 재심 등 이슈만 조

금씩 달라졌을 뿐 변함없는 인권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담아둘 수 없었던 것.

임씨는 "엄마들이 싸울 땐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솔직히 운동 같은 거 잘 몰라.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갇 우리 아이들이 나오면 된다는 심정으로 다들 나선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날까지 여기를 지킬 거야."라며 총총히 발걸음을 돌렸다.

8) 박정희기념관 반대 100번째 1인시위 임기란씨
한겨레신문 2001년 07월 19일, 안수찬 기자

“이젠 시청 경비직원들까지 우리를 반겨요. 그동안 정이 들었거든요.”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가 19일로 100회째를 맞았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해 휴일을 빼고는 매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에서 꼬박꼬박 열렸다.

100번째 ‘주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의장이다. 그는 “이제는 시청 경비직원들과 덕담을 나눌 정도”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정희 정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바로 인권탄압 아닙니까. 생때같은 자식과 남편을 감옥에 보냈던 어머니들을 대표해 제가 나섰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국고를 들여 박정희기념관을 짓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고생해온 임씨는 이날 아예 의자까지 갖다놓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시청 앞을 지켰다. 그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반대하는데도, 정부의 기념관 건립 계획에 변함이 없어 절망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념관 건립에 쏟아부을 정부예산 208억원은 박 정권 시절 핍박받았던 당사자와 그 유족들의 보상금에라도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현정권 들어 거리로 물러난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써야죠.”

그동안 시청 앞에 나선 99명의 시위 주자들 또한 임씨의 생각과 똑같다. 장준하 선생의 차남인 호성씨, 최종길 교수의 동생 종선씨,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동생 용준씨 등 박정희 정권시절 죽음을 당한 민주인사들의 유족은 말할 것도 없고,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시인 김지하씨, 현기영 민족문화작가회의 이사장 등도 마찬가지다. 한국 근현대사의 진상을 뿌리부터 왜곡하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100차례나 시위한 것이 기뻐할 일은 아니죠. 하루빨리 이 시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당국이 기념관 건립계획을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9) 민가협 목요일집회 10년 ‘개근’ 임기란씨
한겨레 2003년 12월 11일 김진철 기자

“양심수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올터”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쉬 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양심수가 사라질 때까지 목요일집회는 계속 될 겁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앞. 이날로 500회째를 맞은 ‘목요일집회’에 어김없이 참가한 임기란(74·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씨는 이렇게 말했다. 임씨는 지난 1993년 ‘양심수는 없다’는 정부에 대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매주 목요일집회를 시작한 이래 10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참석했다. “몇년전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도저히 무릎을 쓸 수가 없어 집회에 나가질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임씨는 지난 1985년 서울대에 다니던 운동권 막내아들의 2차례 구속을 계기로 민가협 회원이 됐다. 그 뒤 아들은 형을 마치고 석방됐으나, 임씨는 “함께 일하던 어머니들의 눈물과 아픔을 잊을 수 없어 오늘까지 왔고 ‘민가협 엄마’란 타이틀을 붙인 투쟁력과 배짱은 이전의 모습을 싹 바꿔놨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투쟁 현장을 누비다 늦게 집으로 돌아와 공공 앞에서 ‘내일은 절대 못 나갈 거야’ 하다가도 아침이면 또 일어나 어머니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곤 했다”며 “지난 1999년 12월 비전향 장기수들이 모두 석방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됐고, 3년 전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얻었다.

임씨는 이날도 양심수 사진을 들고 보랏빛 수건을 쓴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다.

10) 희망을 품고 엄마답게 산다

한겨레21 2003년 06월11일 제463호

인권지기로 이웃과 함께하며 활력 얻어... 무엇이 끼니 거르지 않는 '밥 힘'만 하라

칠십 문턱을 넘은 지 몇년 되었으니 오래 살았다고 여긴다. 험난하고 덧없는 인생 길에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새삼 고맙다. 나도 이제 누구나 다 가고 마는 길을 향해 그 많은 이별과 경험으로 배우고 익혀서 늘 마음다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드물겠지만, 모두 살고 있을 동안 건강하게 살다 마치기를 원한다.



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데, 3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이 생겨 병원에 간다. 저혈당 현상이라나. 온몸이 진땀으로 고통받는 게 싫어 먹는 것에 신경쓰니 배가 더 나온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무슨 '건강 이야기'인가 할 것이다. 나는 곧 '복망산'에 갈 무지 뚱뚱한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아픔이 있는 현장에 달려가는 '인권지기'임을 자부하며 신체의 아픔을 딛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건강법이다.

18년 전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막내아들의 두 번째 구속으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회원이 되었다. 절망과 분노로 울고 지새느라 온몸은 붓고 가쁜 숨을 쉬는 환자로서 면회도 잘 못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구치소에 모인 많은 대학생 부모들을 만나 서로 말하고 의지하니 점점 새 힘이 생겨 큰소리도 나오고 아들을 위한 지혜까지 생겨났다. '민가협 엄마'란 타이틀을 붙인 투쟁력과 배짱은 이전의 나의 모습을 싹 바꾸어놓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학생·노동자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수천명 양심수들은 감옥에서 옥중 투쟁을 하여 바람 잘 날 없었다. 50~60대 '아줌마'들이 하루 종일 투쟁의 현장을 누비고 다니니 어찌 몸이 성하랴. 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끄떡 앞으며 "내일은 절대 나가지 못할 거야" 하다가도, 아침이면 또 일어나 어머니 동지들이 약속한 곳으로 향했다.

18년 세월을 오로지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면서 불의와 부정, 부조리를 미워하며 옳음을 위해 싸워왔다. 그러면서 슬픔은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니 어느새 몸의 병도 겁나지 않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칠순 '할머니'인 내가 지금껏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 희망이 나를 여전히 '민가협 엄마'로 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건강법'인가 생각하니 희비가 교차한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것 하나. 내가 활동을 유지하는 비법은 바로 '밥 힘'이다. 우리 민가협 엄마들은 밥 때는 꼭 챙긴다. 배가 든든해야 발걸음에도 힘이 생기고 지해도 형성되는 법이다. 어찌다 빠듯한 일정이 계속될 때는 집을 나설 때 꼭 도시락을 챙긴다. 찬은 없을지언정 밥은 꼭 보리밥이나 현미밥으로 지어 담는다. 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병들은 나와 함께 투쟁하고 끼니마다 보충해주는 영양으로 잠잠해지는 것이다. 병 자랑해서 뭣하랴. 이렇게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기쁨이 어딘가. 오늘도 갈 곳이 많구나. 아이구 바쁘다! 일어나자, 이만.

11) "16년의 외침, 젊은 구성원 통해 한 걸음 도약해야"

성대신문 2009년 03월 02일 임태희 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 민가협)는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어머니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다. 특히 민가협의 활동이 주목 받는 이유는 16년째 목요일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이례가 없는 장기집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민가협의 시작을 일군 임기란 전 상임위원장을 만나 목요일집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민가협을 일구게 된 구체적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1985년 서울대를 다니던 막내아들이 학생 운동을 하다 구속됐다. 당시에는 막내아들처럼 옳은 목소리를 내다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분노한 어머니들과 함께 아들의 석방을 위한 시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내아들과 같은 양심수의 석방만을 목표로 삼았지만,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부당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을 알게 돼 아들이 석방된 뒤에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집회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집회 초기에는 심적 어려움이 많았다. 깡패들이 위협하기도 했고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에 대해 빨갱이 소리를 듣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집회의 취지에 동감한 많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이 일이 옳다는 확신이 지금까지 집회를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목요일집회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주된 요구는 이뤄내지 못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회의 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의 악법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이데올로기적 판단에 있어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상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 자연스럽게 굳어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 같다.

-구성원이 대부분 고령인데 앞으로 진행상의 문제는 없겠나

목요일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 양심수 석방이라는 우리의 주된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구성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1인 시위와

같이 상황에 맞춘 형식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예전에 비해 젊은 구성원의 참여가 적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확실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가에서 강의요청도 받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시위참여도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젊은 층 전반에 퍼진 사회적 무관심 못지않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줄어들어 이를 문제로 인식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라도 꾸준히 우리를 찾아주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앞으로 △퍼포먼스나 콘서트 같은 집회형식의 다양화 △비교적 관심이 많은 현안 논의 △합동 시위 계획 등 젊은 층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11. 임기란이 말하다

1. 민주가족: 나는 민가협 엄마라 해요

1) 국민의 아픔, 집회 표현의 자유는 개 뼈다귀인가 2009년 9월 88호

올해 광복절에 157만 명을 특별 사면했다. 그러나 죄 없이 갇혀있는 양심수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았다. 12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심수는 없는 사람 취급이다. 일심회사건의 이정훈 이진강 씨는 만기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도 누락되었다. 사람답게 살려고 기본권을 외친 노동자, 철거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젊은이, 엉뚱한 국가보안법으로 엮은 실천연대 활동가들, 범민련 이규재 선생님과 젊은이들, 120여명이 자유를 잃고 옥살이에 고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25년을 석방운동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해온 민가협 어머니로서는 괴씸하고 유감스러웠다. 아니 분통이 터졌다. 입으로는 소통하자, 시민단체와 의논도 하고 함께 일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몽땅 헛소리인가.

한동안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좌파, 좌빨하는 소리가 요란했었다. 작년 일년 내내 광우병소고기 촛불을 잡아가두느라고 바빴을 그들이 나중에는 유모차애기 엄마 집까지 들이닥쳐 공간바람을 피웠다. 그러나 요사이 판사의 무죄 판결을 종종 볼 수있다. 검찰은 MBC 피디수첩을 죽치더니 급기야 미국 소고기 장사꾼들이 며칠 전에 피디수첩과 여배우를 고소했다고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는 것을 어찌 MBC와 여배우에게 죄를 묻는단 말인가. 세 살 넘는 소고기를 뼈채 수입하겠다고 부시에게 경솔하게 약속한 이명박의 죄는 어디에 있는가.

용산4구 철거민들의 참사는 지금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기미도 없다. 구속된 철거민들 재판도 중단되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모르쇠로 힘없는 약자들이 제 풀에 쓰러질거라고 먼 산 불 보듯 한다. 한 술 더 떠서 용산참사에 연대하는 종교인, 변호사, 인권단체들을 상습적으로 시위를 하며 유가족을 선동하고 있다고 으르렁 거린다.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일이 있을까. 일곱달째 영안실에 얼어있는 이분들의 유가족은 그 한이 하늘을 찌르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낸다. 철저히 모른 척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좋은 말만 늘어놓으니 진정성이

없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재를 털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전달되지 않고, 운하는 취소하고 4대강을 살린다고 해도 의심스럽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생각과 행동에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투철한 정치인이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

법과 원칙을 부르짖던 이대통령의 넋두리는 고작 이런 것인가. 수십년 고생하여 만들어가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는가. MB정부 2년이 채 안되어 남북 소통은 흔적없이 형클어지고, 민생고는 아랑곳 않고 선부른 정책 남발에 국고는 거덜났다. 뜻있는 국민들의 시국선언에 반성은 커녕 전교조만 탄압한다. 권력의 오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중징계를 남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개 뼈다귀인가. 국정원, 경찰, 검찰, 기무사, 청와대 이대통령의 나팔수 주구 노릇에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듯 바른말하는 정의로운 시민을 붙잡아 가두기에 바쁘다. 국회가 다시 열린다는데 이정희 의원을 쥐잡듯 끌어내고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던 장면이 눈에 생생하다.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막으려는 난투이다. 세상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의사당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개탄한다.

이북이 고향인 우리 부부는 80노령에도 조국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한다. 수십년 쌓아서 이룩한 민주화 운동 평화로운 남북통일 운동은 이명박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되어 몽개버렸다. 교만한 자존심과 무지한 우월감은 사대사상이 더욱 커져서 특하면 미국으로 뛰어가고 한반도 남북에 소통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나 현대그룹 현회장이 북에서 돌아와서 숨통퉁이는 남북관계의 복원을 기대할까. 옥중에 고생하시는 양심수 여러분 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민주가족을 만들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부디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촛불 만세! 2008년 7월 87호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5월 2일부터 여중생들이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두달넘게 수백만명의 촛불이 되어 서울광장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집회하고 행진을 하면 경찰은 물대포를 쏘

대고 수화기를 품고 던지고 화단의 돌까지 뽑아 던지는 횡포를 부려 매일 부상자와 연행자는 끊이지 않았다. 6월 10일 70만명의 촛불을 청와대 뒷산에서 보고 뼈저리 후회를 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이 지나자 더 포악해져 6월 28, 29일은 서울 세종로를 야수처럼 날뛰어 112명의 부상자와 200여명을 연행하는 생지옥을 연상케 했다. 평화적으로 촛불들 시민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선혈이 낭자한 여성이며 남성이고 마구 군홧발로 짓밟았다. 이튿날 1일날 새벽 6시에 대책위 사무실인 참여연대에 쳐들어와서는 기물을 가지고 갔다. 경찰이 시민단체 사무실을 수색하는 일은 군사정권 이후에 없던 일이다. 더 기막히게도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로 쓰이지 않는 진보연대 사무실에도 난입하여 컴퓨터 20여대와 황순원 동지를 잡아구속시켜 버렸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한청의 윤희숙씨도 이미 폭행 속에서 끌고 구속되어 갇혀 있다. 티브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촛불 든자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고 부채질 했다고 한다. 아~! 그래서 1996년 연대 815 경축행사때 집에 가려는 대학생들을 종합관과 과학관에 가두어 놓고 일주일동안 헬리콥터 6대가 번갈아 최루액 보따리를 떠 부었나 보다.

죄없이 갇힌 젊은이들

며칠전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광우병대책국민회의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인 안진걸씨와 윤희숙씨를 면회하였다. 씩씩하였는데 아직도 얼굴이 붉게 부어 있는 진걸씨와 희숙씨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황순원씨는 놀랍게도 의자에다 수갑을 채운채 조사관앞에 앉아 있었다. 면회할때도 수갑을 채운것에 대해 민가협 어머니들은 큰 소리로 따졌다. 경찰들이 "잠도 못잤는데, 시끄럽다"면서 우물쭈물 자리를 피한다. 사실 이 젊은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폭력에 당하고 촛불질서를 챙기는 죄밖에 없다. 서글픈 분노는 민가협 23년간 익숙하지만 거꾸로 폭력을 뒤집어씌우는 경찰이 한없이 미웠다. 수배자를 더 잡는다고 한다. 그 잘난 권력을 휘두르는꼴은 군사정권 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다. 서울광장에 우렁찬 노래 소리에 함께 부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위정자들은 장관고시를 선언하고 8개월간이나 저장한 미국쇠고기를 시판한다고 내 놓았다.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옹고집 독재로 밀어 부쳐도 된다.'고 얘기하는 듯 하다. 인수위때부터 갈팡질팡 하더니, 고소영, 강부자 정부요직구성과 대운하를 관철하고,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경제살리기는 세계 불황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뿐인가 10년간 남북교류로 일구어 놓은 615 104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통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적으로 삼고 외세에 아첨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특사에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반듯이 양심수 석방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철거민, 양심선언 병역거부 학생들,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하는 양심수들 아직도 50여명이 감옥에 있다. 이번에는 꼭 전원 석방되어야 한다. 죄 없이 갇혀 있는 양심수를 하루빨리 집으로, 직장으로 돌려보내라. 이분들은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며 모두를 위한 행복한 삶과 사람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거리에 나와 국민에게 알린 죄밖에 없다. 815 특별사면에는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여야 한다. 뒤늦게 만들어진 청와대 해당부서는 석방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하루도 안 빠지는 이영 회장님 우리 민가협 어머님들 진짜 수고하십니다. 대한민국 촛불 만세!

3)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

2008년 2월 84호

보름 넘게 앓고 있는 감기가 나를 괴롭힌다. 지팡이를 짚고 나가면 벌써 지팡이 신세가 됐다고 대놓고 말한다. 연세가 많으신 어느 분은 벌써 지팡이를 사용하느냐고 안타까워한다. 아침 신문과 방송에 이명박 새 대통령과 같이 일할 13명의 각료 소개가 나온다. 어디서 저런 위인들을 긁어모았을까 할 정도로 부자이자 거짓말투성이 부동산 투기의혹, 표절 의혹교수, 이력 속임, 고집불통의 이지러진 남북관을 가진 반통일 인사 등이다. 이를 보니, 대선 때 시끄럽던 기억이 되살아나 불쾌한 한편 이 나라의 앞날이 저옥히 염려스럽다. 고매한 인격의 소지자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새 정부를 이끌어갈 13명의 간판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인기가 요즈음 딱 떨어졌다 한다. 그도 그렇지. 돈, 돈, 경제 살리기 등 달콤하고 솔깃한 꾀으로 크게 승리하기까지 국민들은 부풀은 희망을 가지고 지지했고 이겼다. 그러나 전쟁전리품 다루 듯 하는 점령군처럼 인수위의 오만불손하고 미숙하며 거칠은 결정들로 두 달 내내 옆치락뒹치락하며 시행착오한 끝에 정부조직개편안 결정이 어렵게 해결됐다. 인권단체 공대위가 주장했던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과 통일부는 겨우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은 정부 운운하며 7,000여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킨다고 큰소리 치치만 어쩐지 독재냄새가 풀풀 난다. 한번 내가 결정한 것은

밀고 나가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마냥 자랑하는 이명박 당선인이여, 취임하여 쉽게 독주완주할지 잘 생각보세요.

국보 1호 송례문이 어이없이 불에 타버리자 책임추궁 끝에 문화재청장의 사표는 수리되고 관할 서울 중구청의 하위공무원을 구속 수사한다고 발표한다. 옛말에 '태산진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울려 진동했는데 쥐 한 마리가 원인이었다)이 실감난다. 600년 역사 속에 견딘 송례문이 70대 노인의 양심방화로 어이없게 타버린 이 원통한 현실에 과연 책임질 사람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 과시행정, 생색내기 행정 끝에 송례문을 개방하여 원인 제공한 이명박 전 시장을 강금실(전 법무부장관)씨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호되게 야단친다. 사실 모두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 권력을 얻은 인물을 비난하면 내게 화가 다칠까봐 몸 사린 공무원이 한둘인가. BBK의혹 이명박 특검은 '이 당선인은 아무죄도 없다', '도곡동땅임자도 아니다', '동영상에 나온 BBK를 만들었다는 연설은 선전용'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을 누가 다 고지 들겠는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희희낙락하고 야당은 면죄부 주는 쇼라고 비난한다. 참 정치는 더럽고 치사하다. 알 수 없는 것은 곧 그만둘 노무현 대통령이 뭣하러 특검을 하라하여 욕을 먹으면서 이 당선자 입장을 세워주는가. 하기사 참여정부 5년동안 과거청산을 외치며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하여 과거사위원회들이 생겨나 그동안 억울했던 피해자들의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되긴 했다. 간첩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함주명 선생과 인혁당 사건의 진실도 바로 잡아줬고 16년 만에 유서대필 강기훈 양심수도 죄가 없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 인수위원장은 부자가 무슨 죄냐, 이정도 가지고 국정수행에 결격사유가 안된다라고 언명한다. 그러나 국민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나라 살림 사는 것을 어찌 방관할 수 있을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길 원한다. '뻔한 반대를 하는 것이니 아는 국민들은 다 안다'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안하무인격인 태도가 나를 힘빠지게 한다. 23년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온 민가협 엄마인 나는 평소 소신인 가치관의 혼돈을 여러 방법으로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좋은 세상과 눈물 없는 세상을 원하는 내가 욕심이 많은 것인가.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은은한 향기가 스민 『그래도 희망입니다』 출판기념 전시회에 갔었다. 홍성담화백의 그림에 문규현 신부님의 글이 있는 곳이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신부님이 직접 서명한 책을 펼쳐보니 나도 모르게 희망이 여기 있구나 라고 여겼다. 민주화운동 20년 동안 피와 눈물의 많은 희생자들의 얼굴과 많은 양심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갖기에 나는 너무 늙

어버린 것 아닌가 싶다가도 곧 '아니야, 지팡이 집고라도 이때까지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본다. 엄혹한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시절 안기부에 잡혀서 혹독하게 고문으로 고생한 홍성담씨는 여행 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전시회장의 담백한 수채화 속 그림들은 지친 나의 혼을 맑게 해주는 듯 하다. 땅, 태양, 농부, 바다의 그림들은 세상의 욕심 폭압 억지 주장들이 없는 아름다운 사상들이 깃들어 있는 듯 문외한인 나도 깨끗한 딴 세상으로 인도 되는 듯 하다. 같이 옥고를 치른 문규현 신부님의 편안한 응대가 책속의 철학과 자유로운 사상을 반영하는 듯 따스하고 사랑스럽기도 하다. 부정과 고문, 권력을 싫어하는 이런 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힘없는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리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간다. 이런 분들이 비틀거리는 나를 지탱 하리라.

새 정부 요인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국민정부를 위한 정치를 하라. 억지 주장정치는 지양하고 돈이면 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정의와 도덕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의 권익을 찾아주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소수 국민을 어루만지는 위정자가 되라고 부탁한다.

4) 올해도 투쟁, 투쟁!

2008년 1월 83호

작년 말 대선 끝나고 나는 허탈과 실망의 수렁에서 한동안 헤맸다. 연말에 마지막 목요일 집회에서 겨우 정신 차리고 22년 동안 하던 일을 하려고 다시 다짐했다. 이번 연말 특사 때, 양심수 중에는 두 사람만이 석방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인 김성환씨(삼성일반노조 위원장)를 오래간만에 만나니 지난 여름 내내 연말 사면을 말하던 청와대인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사면복권의 대상자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정치비리자, 재벌비리자, 부정선거 비리자 들만 해당되었다.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아직 75명이나 있는 양심수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12월 대법원 재판까지 끝난 일심회 사건(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들은 요사이 전국의 교도소로 이감되었었다. 한때 참여정부는 악법폐지 당론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기 끝나도록 양심수 석방에는 가장 인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말뿐인 헛구호였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시절부터 우리 지식들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목숨과 피와 땀으로써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 군부독재정권은 권력연장을 위해 공안수

사관의 거짓 자백강요, 고문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으로 수배로 고통을 주고 의문의 죽음도 끊이지 않았다. 공포 분위기에 간첩, 빨갱이, 용공좌경 등 학생, 청년, 민주인사를 짓밟아왔다. 1998년 위대한 민중의 승리로 10년간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나 호시 탐탐 늘 수권정당의 칼을 갈며 정권탈환의 기회를 엿보던 한나라당 후보에게 이번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경제를 노래하던 이명박 당선자를 우리는 지켜본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기 전, 우리 모두 반성하고 새로운 용기를 내어 그들을 견제해야 하고 이 나라 겨레의 행복을 고루고루 가질 수 있고 부정과 비리를 축출하는 투쟁을 결심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최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

2001년 한 겨울, 영하 13도 추위 속에서 명동성당 들머리 노천에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해 일주일 단식 투쟁을 감행했다. 무서운 추위와 공복도 아랑곳 하지 않고 쏟아지는 눈 속에서 투쟁하여 현재의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냈다. 그런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 안 될 일이다. 올바른 인권 의식이 없고 자기 권력산하에 넣어 무소불위로 결단 내려는 알뜰한 권위 의식이 염려스럽다. 경제와 대운하 타령만 연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권의 존엄이 소중하고 값어치 있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광 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은 '죽은 인권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우리 인권활동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통일부를 폐지한다.

인수위는 오만하게 거침없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를 없앤다고 한다. 작년 10월 4일에 2차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유익하게 마쳤는데 모두 무시하고 외교부 한자락에다 넣는다고 한다. 헌법 4조, 6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통령은 이 나라 통일문제, 남북문제 향상을 서로 의논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나. 많은 실향민의 안타까운 소망을 잘못된 대통령의 인식으로 인해 후퇴할 수는 없다. 1000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1월 28일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서 결정해야 한다. 통일부 폐지 반대 여론에 대해서 이명박 당선자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이고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반대라고 억지소리를 한다. 줄속 정책으로 무조건 통폐합으로 뒤집어 놓기 등 억지 변화를 주는 일은 위험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선명한 야당으로 울

지 못하는 입법과 통과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운하 건설 밀어붙이기도 한두 가지 한심스러운 데가 아니다

이 땅의 대 재항을 불러 온다는 거대 토목 공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산을 오십 리나 뚫고 물을 넣어 운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수십조를 들여 만들어 봤자, 77%의 운송 업체들은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여론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곧 특별법을 만들고 운하 만들기를 시작하겠다고 국민에게 거만하게 여러 번 언질을 준다. 대운하 건설의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당장 멈춰라.

금단의 선, 폴리스 라인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많은 집회시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불법시위를 엄정처리 한다고 엄포를 놓고 폴리스 라인 안 지키는 시위자는 연행한다고 협박한다. 한때 경찰청에도 인권 바람이 불더니 너무 불어서 모두 사라져버렸나 보다. 공권력으로 살인하고 구속 남발하는 공격성 진압이 되살아났나보다. 이 땅에 버젓이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도 헌법에 있지 않는가.

곧 설날이 다가 온다. 국민대이동이 있고 친지가족이 상봉하고 조상 차례도 지내고 선친의 묘소에서 절을 올릴 때 차디찬 감옥에서 길거리에는 양심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남아 있다. 한미FTA에 반대한 농민은 나 혼자만의 욕심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고 철거민의 분노는 용역 깡패의 무지스러운 소행과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장흥 교도소의 성낙경님, 몸 조심하세요. 안동 교도소의 정창윤님, 안부인사와 교도소 상황 연락해줘서 고맙습니다. 전주 교도소의 수인 생활을 시작한 이정훈 씨를 비롯한 일심회 사건 양심수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올해도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만한 권력자들의 그릇된 정책을 비판하고 인권이 충만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이랜드-홈에버 아주머니들 힘내세요. 가열찬 여러분들의 투쟁을 존경합니다. KTX 여승무원들, 철도 노조원 여러분 힘내세요. 또 핏박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어서 강제추방제도가 없어지고 노조활동이 인정이 되고 이 땅에서 함께 일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종로경찰서에서 1월 22일 철거 온다는 대학로 노들장애인 야학 천막교실의 40명 장애인 학생과 박경석 교장 선생님의 소망도 이뤄지고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늘 미안합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병역거부양심선언 젊은이들이여 사랑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조국 건설에 올바른 대체입법이 꼭 제정되어 모두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투쟁, 투쟁.

5) 고통 받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07년 12월 82호

17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 다가온다. 긴 후보 벽보가 담벼락에 붙어있고 당사자들은 사생결단 내가 진정한 대통령 감이라고 우긴다. 쉼 목소리에 지친 듯 애써 웃으면서 전국의 유세하는 행태도 각양각색이다. 아무나 손잡고 끌어안고, 서민들의 가치가 요사이 부쩍 올라갔나보다. 그러나 이때뿐임을 나는 잘 안다. 좁은 골목에 가득 서서 연탄 배달하는 특정후보의 가식과 할 일없이 서있는 멀쩡한 들리리에서도 냉소적인 희극을 본다. 술한 의혹과 불법행위가 보도되는 인물이 나라를 부자로 만든다고, 일 잘한다고 세상 공기를 이상하게 바꿔놓고 국민들의 오랜 가치 판단을 흔들며 놓고 있다. 평등과 인권을 소중히 얘기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오로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야단이다. 이런 후보일수록 지지율이 높다. 뺨 없고 힘없는 국민은 오늘도 근심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비비케이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이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고 무혐의 처리를 선언하고 면죄부를 주고 난 뒤 민가협 어머니들이 종일 요 몇일 길거리에서 보낸다. 동업자 중 단지 한 사람(김경준) 만이 주가조작 사기라는 죄가 있다니...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기소하지 않겠다고는 하나 여전이 의문점은 남아있고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도덕적 책임까지 덜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추운 겨울 고달픈 막일로 연명하는 서민들이 애환, 그나마 없어진 일자리를 찾아 내일의 설계커녕 없어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소외된 삶이 있다. 민가협 엄마들이 찾아간 이랜드-홈에버 비정규직 아줌마들의 농성장에서 이런 비애를 감지한다. 당장 먹고 살길이 없어서 농성장 지키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여성가장의 애로가 안타까운 근심과 한숨으로 바뀐다. 청와대 근처에서 진행된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도 집권자의 귀에 울리는지 의심스럽다. 며칠 전 우리 어머니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양심수 명단을 청와대에 해당부처에 전달하였다. 지금 전국교도소 곳곳에서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단식하는 노동자가 많다. 갇힌 사람들의 단식은 그야말로 목숨

을 내놓고 항거한다는 뜻이다.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는 13일 단식 끝에 입원하고 다시 2차 단식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다. 이분은 최근 드러나는 삼성재벌의 부당하고 교묘한 비리에 더욱 비분강개했으리라.

삼성 재벌의 비리와 대기업 사장 출신 대통령 후보의 자식들 위장취업 등의 불법이 드러나고 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돈으로 인재들을 고용해서 빈틈없이 위장하여 끝없는 탐욕 행각하는 범죄에 놀라기 앞서 평생 주머니가 가벼운 나는 왜 그렇게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사회 환원사업으로 복지와 빈민구제를 베풀어 국민에게 존경받는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가족 재물주기에만 급급하여 정치, 법률, 행정하는 고위 인사들을 뇌물로 포섭하여 눈감게 하려는 술수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재벌이 나라에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런 행태로 끝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완전 범죄도 세월이 지나면 탄로가 나고 세상이 알게 된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세월 20여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세력들이 줄줄이 양심수가 되었던 사건들을 기억한다. 경찰은 고문과 조작으로 넙치가 되도록 구타와 폭행하여 억지 조서를 만들어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피해자의 어떤 비명도 탄식도 못들은 채 그들의 각본에 의한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에 회부했다. 공안판사는 울부짖는 피고의 호소를 간단하게 눈감은 채 유죄를 선고 하여 감옥으로 보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시녀들, 사법부는 공포와 절망의 소굴이었다.

1991년, 분신한 김기설 열사의 동기이자 친구인 강기훈에게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이 씌워졌다. "이때 지면 검찰은 몰락"한다는 기치아래 모든 진실 된 증거를 외면하고 청년 강기훈을 3년 옥살이 시켰다. 16년 지난 지금, 과거사진실규명위에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강기훈의 아버지는 숙이 타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중병을 앓고 계신다. 일주일전 석방되신 78세 고령의 강순정 선생님은 1년 만에 출소를 하였다. 사건 맡은 검사는 어찌나 끈질기게 간첩 물이에 몰두한 나머지 재심 상고심까지 가려다가 상고는 제품에 포기했다. 나는 오랫동안 공안사건을 다루는 검찰들을 보왔다. 정치검찰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검찰 안 밖으로 검찰개혁을 그렇게 얘기했건만 삼성 장학생, BBK발표...등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이 더 높은 도덕성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도 독재정권시절 저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양심 있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빨갱이 색깔로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공안수사로 고문 조작하여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고 탄압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 또 다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생길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민주화운동 하는 동안 그 많은 죽음과 억울한 구속으로 권력을 누리던 집권세력이 다시 군림할까 우려된다. 거울같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인물만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민주주의가 있는 숨쉬고, 평화 통일이 기대되는, 우리의 소망 인권세상이 올 것이 아닌가. 투쟁.

나의 기도

이국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가 갇힌 몸이 되어버린 이주노조 위원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힘내십시오.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인권적인 단속에 문제제기를 해오던 이주노조의 집행부 까지만, 마숨, 라쥬 3인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만 일삼는 이주노동자 정책이 개선되어 모두의 소망대로 이 땅에서 함께 어울려 일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6) 그래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2007년 10월 81호

추석명절의 긴 휴가도 끝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다. 허리 병이 미처 낫기도 전에 겨우 집안의 연례행사를 마쳤다. 항상 나를 거들어주는 남편도 점점 잊혀버리는 횡수가 찾아져 나 역시 스트레스도 받았다. 우리 노부부의 앞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지 못한 채 갇혀 있는 노동자민주인사들을 생각하면 괜한 투정이나 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런 내게 서경순, 조순덕 어머니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하며 손잡아 준다. 내가 정신차려야지.

지난 주 680회 목요일집회에 나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단식하다 나온 몸이라 그런지 20kg나 체중이 줄었고 얼굴은 아주 까칠하였다. 겨우 마흔이라는데 깎지 않은 수염, 대머리까지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버마인 조모아씨의 앓던 얼굴과 서툰 한국말이 우리 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린다. 목요일집회 직전 서명된 남북정상들의 한반도

통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도 오랜만에 내 가슴에 아련한 희망을 품게 한다. 남편은 21세의 어린나이에 공부한다고 서울에 와서 고향으로 못간지 62년이 되었다. 해방 후 분단으로 인한 1,000만이었던 이산가족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언제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만날지 아득하기만 했는데 금강산에 상봉면회소를 만들어 이산가족 만남의 행사를 한다하니 생전에 못 이룬 이 통일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같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비방하며 원수 시하여 60년을 지내 왔었지 않는가!

북의 미사일 발사 실험 시, 전쟁 불사한다 하며 험악한 얼굴을 하던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 지금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서경석 목사의 북으로 쳐들어 가야 된다고 거품을 품으면서 흥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위 당국자들이 남북 대결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남녘의 평양방문단일행이 떠나기 하루 전에 수행하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만나 꼭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임기동안이라도 범여권의 국회의원들이 3년간이나 계류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고 북녘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법을 상호정신으로 고쳐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다. 요사이 매일 집회하는 남북자 가족들의 한도 풀어주는 전향적인 노력을 바랐다.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했다. 그리고 이번에 수행한 인사들 속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았다. 7년 만에 이루는 이번 만남은 지난번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논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텔레비전에 비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를 사색케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모습들은 온 겨레가 일거수일투족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하게 우리 여망을 전달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듯 하여 희망적이다. 여러 가지 정책을 현실화하여 임기동안이라도 큰 성과를 내어 이루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남과 북은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큰 전쟁을 치르는 비극 속에 현재에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북을 적대시 하는 한나라당과 수구패들이여, 이제 그만 남과 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북한 방문을 거절한 웅졸함도 유감스럽다. 과거 독재정권은 오래 동안 집권하며 선하고 의로운 양심세력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핍박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은 민주화 운동하는 광주시민을 총칼을 투입하여 무참히 죽이고 실제 그 수는 몇 천이라 하였건만, 정부는 그때 300명이라고 하며 빨갱이들의 사주를 받은

공산분자들의 시위라고 국민을 속였다. 겁에 질린 국민들은 처음에는 잠잠했으나 얼마 안가서 목숨을 건 젊은 학생들이 저항하였고, 세계에 알리고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때 민가협 어머니들은 감옥에 가고 죽은 자식들을 대신하여 최류탄 속에 많은 군중들과 함께 독재자들을 규탄하고 양심수 석방을 외쳤다. 양심수를 만드는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금까지 우리는 외치고 있다. 올해 610항쟁기념 20주년을 맞아 6월 10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22년 민주화 물결 속에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러나 내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 내 자신을 닦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어느 나라든지 독재자의 탄압수법은 비슷하여 최근 버마에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위대를 향한 폭력적인 진압이 난무하고 2,000여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가 가짜 스님들이라는 거짓 선전을 하며 진압을 철저히 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군부독재 세력의 위력이 기고만장하겠지만 부당한 권력은 언젠가는 내리막이 있고 응당한 천벌을 받게 됨을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단합된 민중이 노도같이 일어나면 강한 권력도 항복하게 되어 있더라. 유엔인권위가 경고 안을 내고 유엔도 특사를 보냈으나 현재 상황을 바꾸기는 역부족인가 보다. 우리도 미얀마 민주세력 탄압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국내 버마민주화 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피 흘리는 희생자가 더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같이 행복해야 될 것 아닌가.

세가지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양심수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영등포교도소)님,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힘도 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동교도소 시설개선을 위해 단식으로 투쟁하신 양심수 심진보, 정창윤 양심수 분들께 인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장기간 단식하신 두 분의 귀한 정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광열씨와 민가협 어머니들은 법무부 보안과 과장을 만나 교도소 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도소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이 교도소 투쟁소식을 빨리 알았다면 단식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고향을 보낸 양심수 송인욱(양심에 따른병역거부, 영등포교도소)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것은 여러 어머니들이 나누었고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요즘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 가을이 분명한 가 봅니다. 10월 8일부터 3일간 민가협 장터를 서울대 축제에서 마쳤습니다. 힘이 들지만 87년 연탄불 3개로 시

작한 이 장터는 내가 꼭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의를 다해서 맛있게 만들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장터 수익금은 민가협의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감사합니다.

7) 속타는 양심수 석방운동 2007년 8월 80호

사면이 없다

양심수 석방 명단을 들고 다니는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해당 관계자들은 금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즉 연말에 대선 끝나면 그때 가서 할까 얼버무린다. 민주가족 여러분, 어디 말이다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 미룬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은 참으로 많지만 그 중 정부정책에 반대했거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투쟁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인 국가보안법 등으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석방하길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받아 줄 사면권도 마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너무도 소수의 양심수를 사면하고는 5년간 모른 채 하여 815광복절을 즈음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을 우리 민가협 엄마들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촉구하였다. 그 동안은 비리로 얼룩진 재벌들,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석방을 위해 양념으로 끼어 넣은 양심수 사면이라서 늘 미진하고 안타까웠다. 과연 옛날에 인권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었나 하고 의심하게 한다. 며칠 전, 너무도 힘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청와대를 방문한 우리에게 '대선이 있는 요즘 (사면을) 단행하면 정치적인 생색내기 소라고 비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연말이나 대통령 취임 전이나 할까한다.'라고 말해준다.

특별사면이란 말은 죄를 용서한다 즉, 다시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려보낸다는 뜻 일거다. 우리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폐지를 외친 노동자, 한미FTA협상의 부당함을 외친 농민, 도시 철거민의 허망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수의와 징역을 그 대답으로 들은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만드느라, 한미FTA협상을 끝내느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비싼 아파트를 짓느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지고, 항의 하는 주먹에 수갑을 채웠던 이들은 이제 그 양심수들을 풀어내야 한다.

양심수는 있다

한미 FTA협상을 끝내고 비준만 남은 요사이, 때 늦게 오종렬, 정광훈 선생은 한

미FTA반대 집회를 주도 하였다 해서 구속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왜 이렇게도 인신구속을 일삼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옛날의 전성시대가 그리워 온몸이 근질근질한 공안수사관들의 못된 버릇이 다시 되살아나 국가보안법의 무딘 칼날이 다시 천방지축 휘둘러 댈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14명이 재판중이다. 6월 중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권력깨나 쓰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심수 석방을 강조했다. 놀란 것을 단 한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풀어주는 관용 따위에 관심 두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양심수에 관한 업무를 서로 미루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사면 조치는 없을 거라고만 얘기한다. 속 터지는 우리 어머니들은 꾸준한 면담과 설득으로 더위 속을 휘저어 다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헤쳐모여 게임으로, 공무원들은 무사안일 무기력증으로 여전히 무심함 속에 있다.

한나라당의 이가, 박가 후보들이 자신만만하게 이미 대통령이 된 듯 기고만장한 모습이 연일 보도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잘 살게 하고 훌륭한 지도자 되기를 꿈꾸는 대통령 지망생들이여! 진심어린 양심과 국민에게 정직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용기 있게 국민을 대하지 않으면 패배는 뻔한 일이다. 내 몫 이다, 네 지분이다 하다 목에 힘주고 으르렁 거리면 다 공염불되고 또 독재 정권이 발호 하여 탄압의 질곡에서 국민들은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양심수는 급증하리라.

아프간 인질의 무사귀환을 빈다

아프간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벌써 31도 더위 속에 미 대사관 앞에서 서서 단식을 시작한 한상렬 목사님의 건강이 염려된다. 양식 있는 정치인이 아프간 인질의 무사귀환을 걱정하면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반미코드로 움직인다고 비아냥대니, 밉살머리스럽다. 송미, 친미 코드는 어떤 것인가? 독재 정권 시절 인권 탄압의 기수로써 아직도 반성하지 않은 자가 무슨 국정을 논하라. 아프간 인질 소식으로 매일 뒤숭숭한 맘으로 밤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무고한 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아프간의 탈레반이여, 어떤 생명도 소중하다. 생명을 위협하고 흥정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애통한 사람은 가족만이 아니다. 부디 남은 21명이라도 무사귀환을 빌 뿐이다.

민가협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양심수를 석방하고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감옥 안에서 여름 보내기가 무척 힘드실 양심수가족 여러분, 민주가족 여러분, 무더위를 잘 이겨 내시고 서로 손잡고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8) 바쁜 5, 6월

2007년 6월 79호

5월장터

초여름에 들어서니, 민가협 어머니들 할일이 많아져 부쩍 바빠진다. 학생열사들의 추모제에 이어, 서울대 봄대동제 장터를 3일간 열어 운영자금을 벌어야 했다. 20년째 해오고 있는 이 장터는 어머니들에게는 매우 고달픈 일이지만 맛있고 값싼 우리의 별식을 팔아왔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비가 와서 일찌감치 끝내서 그리 많이 벌지 못했다. 학교 가까이 사는 나의 할일은 끊임 물과 음식운반 등인데 이마저도 필요에 따라 남편이 되풀이 심부름으로 도와주고 있다. 민가협 장터의 시종(始終)을 늘 기도하면서도 해마다 많은 봉사자의 수고와 효자 노릇하는 학생도우미들의 정성이 새삼 고마웠다.

추모제

지난 5월 26일, 27일은 크게 감명 깊은 날이었다.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함께 전남화순 백아산에서 진행한 1950년대 전투에서 전사한 어린 병사들의 추모제에 참석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해방 특구의 빨치산이라 부른다. 한국전쟁은 500백만명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928 서울수복 후 경상도, 호남 산악지대에 들어간 인민군들을 독안에 쥐처럼 몰아서 죽인 수는 1955년도까지 4만인지 5만인지 집계가 되지 않아 빨치산으로 참가했던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 서울에서 아침 8시 출발하여 구비구비 산자락을 돌아 11시간만인 저녁 7시에 높은 백아산 산정에 도착하여 이미 와 있는 각 지역의 추모객들과 전야제를 벌였다. 50여년전 이 아름다운 산야 곳곳이 전쟁의 피로 얼룩지고 네이팜탄으로 씨를 말리고자한 쌍방의 대치가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늙은 내 마음은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생사의 기로에서 나라를 생각하며 산화해 갔을 젊은이들 생각에 한없이 마음이 아팠다. 요행히 안 죽고 잡혀 수 십년을 국가보안법을 어긴 장기수로 청춘을 보내버린 통일광장 선생님들이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 산속에서 죽은 이들의 넋과 혼을 위로 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이 땅 이 겨레의 숙원인 평화로운 통일을 기원한다. 척추수술로 인한 허리통증과 감기로 애를 먹었으나 어느 때 보다 감명 깊은 여행이었다.

6월항쟁

6월 10일을 전후하여,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 콘서트, 범국민대행진 등 행사가 잇따랐다.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인 1987년, 서울대생 종철이가 물고문으로 사망하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얼마 안 있어 6월 9일에 한열이가 최루탄으로 쓰러지면서 전국은 연일연야 군부독재 타도 등 정권을 규탄하는 함성으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도 매일 동참하였다. 그 당시 양심수는 1,600여명이나 되었고 학생들이 분신으로 앞장서며 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다. 610항쟁의 결과, 629선언이란 항복 선언도 우리는 별로 믿지 않았다. 610항쟁도 세월이 20년이 흐르니 국가기념일이 되어 국가공식 기념식도 치렀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6월10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고 한다. 양심수가 무엇인지, 우리의 주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일신이 편안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편으론 민주화에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임을위한행진곡'

6월 10일 밤11시에 <MBC시사매거진 2580>에 15분간 민가협 어머니들의 활동이 방영되었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어머니 인권 운동을 부각 시켜준 성의를 고맙게 여긴다. 이 방송에서는 지난 22년간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외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22년이 지났으나 세상이 아직도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무심한 것은 염려스럽다. 빼앗긴 10년을 도로 찾겠다고 한나라당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더니 이번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 좋아한다. 갈래갈래 이합집산하는 여권의 말은 통합이라 하지만 소쿠리에 모래 새듯 모처럼 얻은 권력 판도가 위태롭기가 뜬구름 같다. 영고성쇠는 예부터 덧없고 부질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정직하게 베푸는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다. 올바른 인물을 뽑는 국민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정치하는 자들은 좀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결단내야 한다. 현재는 그저 안개 속 같이 모호하기만 하고 너도 나도 꿈을 꾸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요새같이 무주공산 국회에서 슬쩍 개악된 법이 통과될까봐 염려된다. 국정원이 요구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정이라 하나 국민의 삶속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감청하고 사업자에게 자료를 보관하라고 하는 법이란다. 개정의 목적은 테러방지과 마약 범죄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 민가협은 분명히 반대한다. 법무부에서 5년간 감청한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관련 감청이 다른 범죄의 70배가 된다. 그런데도 다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움아매려 한다.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

력남용은 여태 못 고친 것인가. 1987년 610함성은 민주주의의 피와 땀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고 감옥가고 군부독재자들을 떨게 한 거리 투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또다시 최루탄이 범벅이 된 거리에서 찌그러지고 더러운 정치를 펴는 가짜 지도자를 우리는 섬겨야 하는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싫다. 우리회 끈기로써 꾸준히 투쟁하자. 그리고 승리하자. 더위에 몸조심 하십시오.

9) 애국열사들이여 민주가족을 지켜주소서

2007년 5월 78호

허세욱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4월1일 낮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며 분신한 허세욱 열사를 기리며 17일에 엄숙하게 장례를 치렀다. 한미FTA 협상 때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대표들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청와대 권력들에게 한미FTA 종단을 외치며 이 한 몸 헛불 되어 쓰러져간 민주 택시기사 허세욱 동지는 묵묵히 실천하는 보통시민이었다. 생전에는 몰랐으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웃이라고 한다. 하얏트 호텔 앞길, 그 분이 분신한 자리에서 나온 동전 1300원은 큰 감동을 받게 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고 사는 게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그는 박봉을 쪼개어 열군데 이상 시민사회단체에 후원하고 활동하는 모범회원이었다고 한다. 열흘이 지났지만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고픈 심정이다. 여기저기 다녀도 민가협 어머니들은 특하면 눈물을 흘려낸다. 15년째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에서도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 사과와 만행을 규탄하는 구호속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다. 대선출마 경선을 선언한 권영길 의원의 7전8기 오뚜기 정신보다 그의 아버님이 빨치산으로 돌아가신 사실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 이 땅의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은 고백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의 비극이 의원이라고 비켜갈 수 있겠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에 의해 양분되었던 이 땅의 비극은 지금도 6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언제 통일이 올지 아득하다.

늘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다고 눈이나 깜짝할 줄 아나? 내 소신은 변함없다. 이제는 인기 없고 상품가치도 없다."는 대통령의 말. 한미자유무역협정 해약은 비단 농업뿐 아니다. 하나 아득한 예부터 농사짓던 우리겨레의 아픔과 고민을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펴는 위정자는 이제 없단 말인가. 망언을 용서할 수가 없다. 강대 우방국가라고 우기는 미국

의 압박은 모든 분야의 목줄을 누르고 있다. 이 작은 국가에서 무슨 장사가 그리 잘된다고 분별없이 불리한 조건을 모조리 받아주는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열사정신 이어받아 한미FTA 원천 무효다, 중단하라!"

나를 버려 몽매한 자를 떨게 한 허세욱 열사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유감스럽게 그의 유가족들이 성남에서 화장했음을 뒤늦게 알고 뿌려진 재 일부를 소중히 거두어 추모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렀다. 일시적 오판으로 고귀한 열사의 뜻을 가리는 과오를 먼 훗날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 열사여 부디 고이 가소서.

일본 아베 수상이 미국 가서 말을 바꾸고 있단다. 정신대 위안부 발언을 유감이 라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의 성노예 사실은 근거가 없고 강제동원한 적도 없다. 다만 일부 돈 주고 샀을 뿐'이라는 방자한 변명이 한풀 꺾어졌나? 교활한 일본의 태도를 우리더러 믿으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나 역시 15세 때 정신대 동원 공포를 경험했다. 친구가 일본 군수공장으로 간 것을 봤다. 무려 20만 명을 정신대 위안부(성 노예)를 삼는 만행을 저지른 이자들이 62년 세월이 지나도 가지가지 잡아떼기 거짓말만 하고 어떤 사과도,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때를 증언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오늘도 백악관 주위에서 시위 행진하는 그분들의 활동을 감동과 분노로 주목한다. 아베의 가증스러운 허위진술이 여지없이 폭로당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여 마땅한 짓값을 받아야한다. 15년째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어머니들은 연신 눈물을 닦아낸다. 할머니들이여 부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탑골공원 앞,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목요집회도 14년이 되었다. 우리 회원들도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1주일간에 있었던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사각 지대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은 늘 안타깝고 긴장하고 힘을 다해 해결하자고 다짐 하게 한다.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구속 수사하는 옥인동 보안대를 찾아가서 슬리퍼를 끌고 나온 수사관을 다그쳤다. 이씨의 구속사유를 묻자, 다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그 자들은 독재정권시절 수사관들과 천편일률적이다. 또 이재춘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구속사유 역시 분명치 않다. 1996년 연대 농성 사건 배후조정자라고 체포 구속했다는 말하는 수사관 역시 악랄한 타입이다. 당시 건물 옥상 사수대 총책이라나. 그때 헬리콥터 6대가 최루액을 퍼부으며 학생들을 진압했다. 10년이 넘는 사건의 주동자 운운하며 체포하는 병적인 집념과 오래된 사건의 끝을 묻고 늘어지는 끈질긴公安수사관들은 국가보안법에 찌든 중독자와 같다. 국가보안법으로 보상금과 신분상승이 보장되는 이 자들의 과장된 조서를 생각하면 한심스럽다.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유망한 창작예술가로 인터넷과 그의 저서에 소개된 판문점 미군기지(유엔군사령부) 소개가 간첩행위란다. 신문방송에

공개된 곳을 찍었다고 꼬투리 잡아 간첩 용의자로 만들다니 우려된다. 단식항의 중인 이씨를 면회하니 그가 어머니들을 도리어 위로한다. 그러나 이재춘씨는 만나지도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귀가할 수 밖에 없었다. 2004년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무능으로 이루지 못했음이 상기되어 악법 퇴치의 한이 나를 더욱 고달프게 한다.

열흘 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주성영 의원 등 발의)에서 구령이 담 넘듯 의결될까봐 민가협은 바쁘게 뛰어다녔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6월 연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치한답시고 혈세로 살아가는 의원들의 무책임한 결정이 어떻게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국정원에서 지난 7년 동안 끌어온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과 더불어 단단히 각오 하면서 투쟁하리라. 현재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개악으로 감청 도청이 공공연해져, 권력남용의 독소가 요소요소에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한사코 폐기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27일 21회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민주인사 민가협 어머니들의 참석으로 경건하게 거행되었다. 비장한 20대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을 추모하였다. 다시 한 번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열사,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10) 다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2007년 4월 77호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어제 3월 25일, 시청 앞 광장은 오래간만에 꽉 찼다. 2만 명 추산이라고 한다. 18일간 단식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여 격정스럽던 마음이 오히려 든든해진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15일째 단식하는 오종렬 전 국연합 상임의장과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등 함께 단식하는 분들과 '한미FTA중단하라'는 저지 운동에 너도나도 모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중동으로 외유를 떠났다. 원성이 자자한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주장만을 밀어붙이고 줄속으로 한미FTA를 성사시키겠다는 것인가. 망국적인 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위정자들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연구를 시행하라.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미국의 야욕을 알리고 강대국가에게 먹히고야 말 위험 요소를 홍보·교육하여 막연한 환상으로 그저 사는 길이 열리겠지 하는

우(愚)를 이제는 거두어내는 자각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농민들 시름에 기름 붓는 미국 측의 쌀개방론도 더욱더 우리를 분개케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이들은 이번에 잘못하면 역적 매국노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일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독재는 늘 망하게 되어있고 옳고 바른 충고는 그 빛이 바래지 않는다.

또 억울한 일 있으면 같이 합시다

하루 전 대추리(평택 팽성읍) 농협 창고에서 열린 미군기지 이전 확장 반대 하는 촛불집회가 935일을 마지막으로 열렸다. 치열했던 항거 투쟁이 생생한데 수 십년 가꾸어 살던 고향땅을 뺏기고 떠나가는 주민들의 심정은 오죽 비통하랴. 내일의 평화적 승리를 위해 부디 가시는 새 삶터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기원한다. '팽성 주민 여러분, 참 잘 투쟁하셨습니다. 국방부의 과잉 제재는 언젠가 천벌 받을 날이 올겁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0조원의 미군기지 이전비용대부분을 우리나라가 부담한다는 소리는 또 한 번 국민을 놀라게 하고 한미 야합의 극치로써 또 한 번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일맥상통하는 미국의 야금야금 쥐어짜기식 압박은 국가 흥망의 가공할 공격으로 여겨진다. 젊은이여! 안이하게 방관하지 말고 내 조국 뜯어먹는 해충을 박멸하자. 20 여 년 전, 데모와 농성, 집회는 청년 학생들과 민가협 엄마들의 전용행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나라당도 박근혜 전 대표가 사학법 반대 시위를 길거리에서 툭하면 하고 뉴라이트와 극우수구 패거리들이 성조기를 찬양하며 대형종교집회도 열고 있다. 이번 한미 FTA저지 집회를 경찰청은 이런 저런 핑계로 불허 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자행하여 평화 집회가 무산되고 경찰의 막무가내식 원천 봉쇄와 마구 휘두른 방패, 살인 몽둥이로 집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과는 노동자, 학생시민들의 적반하장 연행과 구속과 벌금으로 경찰이 정당한 양 호도되었다.

국가보안법,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2007년 새봄의 국가보안법 재판은 지난 1970년대의 덮어 띄우기 하는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념·사상으로 이적시하는 '북녘의 이리이러한~, ~에도 불구하고'라는 공소장을 연발하는 새파랗게 젊은 검사와 늙수레한 검사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구식적인 말투와 억지 심문으로 자신이 메카시적 이분법에 맹목적인 앵무새임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스러움은 극에 달한다. 노령의 민주인사를 5~6년씩이나 감청하여 방대한 공소장을 만들어 본인도 기억에 없는 대화내용을 엮어 첩자로 둔갑시키는 검찰 심리는 유치할 뿐 아니라 많은 노력으로 경쟁을 물리치고 현재 위치에 오른 그 세월과 머릿속에 든 상식이 아깝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22년이나 된 민가협은 올해도 열심히 양심수 석방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하자고 서로 격려했다. 많은 활동가와 젊은 자원활동가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민가협 어머니들이 한살 두살 나이 먹었다고 편안한 일상에 안주할 생각은 없다. 우리 사회는 아직 어머니들의 격려와 질타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치열한 경쟁시대, 돈과 명예와 음모와 술수가 날뛰는 현재,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억울한 옥살이는 안 된다며 석방 운동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참 별나네요. 감사합니다.

11) 새해소망

2007년 2월 76호

봄 인사

금년 설날은 햇빛이 따사롭고 하늘도 맑아서 새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든다. 넓지 않은 앞마당의 흙빛도 거뭇거뭇하여 봄의 기척을 감지한다. 민가협 활동 22년만에 이내 몸은 삐그덕 거리며 쭈시는 사지에 아픈 허리를 곧추 세운다. 가차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고령인생으로 하루와 다르게 쑥쑥자라나는 손자손녀들의 모습을 보는 할머니로써만 살지 않고 1980년도 중반부터 학생운동하는 막내아들의 두번째 구속으로 우연히 어머니들의 모임인 민가협에서 50대 나이가 70대를 훌쩍 넘어버렸다.

이른바, 민주화 운동 물결속에 휩싸여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식들은 장성하여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진입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역대 군부 독재정권처럼 청와대 금고를 갔다 놓고 재벌들의 돈을 긁어 넣지도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처럼 많은 민중을 학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항상 집권을 뺏겨 절취통분하는 한나라당이 4년내내 트집과 생떼로 탄지를 걸어 노대통령과 여당을 애먹이고 비난하다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도 벌써 2월이 넘고 있다.

독재정권의 최루탄 공세와 달라야한다

신이 아닌 바에야 인간은 두루 공과가 있기 마련이나 참여정부는 무능하다. 국민들은 경제를 못 잡았다 하면서 모든 결과를 호되게 욕하고 비난한다. 심지어 무능보다 부패가 더 낫다는 배금주의 일부국민들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이 무섭기도 하다.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의 강박한 정책을 쓰고 있는 현실로서는 당연히 오고 가는 비극일줄 몰랐을까.

농사꾼의 함성을 경찰의 폭력으로써 막아 무고한 농민이 죽게 되고, 노동자의 기본권 찾기 함성도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참혹한 죽음으로 이어져 길바닥에서 단

절되었다. 엄청난 최루탄을 쏘아 권력을 유지하던 부패권력 패거리들과 크게 다를게 없는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의 여수출입국관리수용소 화재로 8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 또한 국제적으로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다. 중국동포 故김성남씨의 체불임금 700여만원은 고인이 된지 며칠만에 슬그머니 통장에 입금시킨 파렴치한 사장이 있고 그 죄가 크다. 이주노동자의 대부인 김해성 목사님이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한국사람이 나쁘다고 비난하니 몸돌 바를 물랐다고 한다. 이국만리 가족을 위해 한국으로 돈벌러 온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악덕 사업자들을 응징해야 한다. 그리고 인정사정없는 해당관리들의 막무가네 체포구금도 지양되어야 한다. 금년에도 반FTA운동으로 골몰하는 농민과 국민을 너무 억압하지 말라. 급하게 성과를 보려하지 말고 저자세 양보는 굴욕이고 진정한 국익으로 이끌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정서와 따로가는 사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우리 어머니들의 소명이라고 여기면서 몇가지 소감을 적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는 너무도 인색하여 사면이된 양심수는 고작 30명이 채 안된다. 삼일절을 앞두고 민가협은 서둘러 청와대, 법무부 등을 방문하여 양심수 명단과 탄원서를 준비해 사면추구를 하였다. (열린당은 탈당 곳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 양심수 사면을 호소할 길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금년 취임기념 사면특혜로 2월초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서로 안목하고 경제비리 인물과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 부패 재벌 435명을 전격적으로 풀어줘서 민가협 어머니들을 격분케했다. 무릇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우리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지 천명의 양심수를 내버려둔 채 아픔을 묵살하고 자기들 잇속에 해당하는 위인들을 마음대로 사면하면 안된다. 분하고 허탈하여 병이 났었다. 가장이 감옥에 간 가정은 대체로 위상이 무너지고 근심으로 모두 불행하여 살림살이도 힘들어진다. 영등포 교도소 김성환 양심수(엠네스티 선정 양심수)씨는 이번에 여덟번째로 단식을 하여 19일이나 그친다고 면회 간 어머니들에게 알렸다. 그 부인과 자식들은 졸업을 앞두고 가장의 귀휴를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설 대목까지 고생했다. 명절에 친지와 자식들과 담소하여 차례를 지내는 일반국민들과 상반되는 가슴 쓰리는 설날을 지냈었다. 김성환씨는 소내 부조리와 여러 가지 악패를 고치기 위해 단식으로 항거하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집행유예기간까지 1년 6개월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한다.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는 하루 속히 석방되어야 한다. 군부독재정권시절엔 국가보안법 양심수가 많았지만 요사이는 거리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던 노동자, 철거민 양심수가 대부분이다. 그 중 기결수가 21명이나 특별사면을 하면서 손도 대지 않고 지나갔다. 그들만의 특사로 얼룩졌다. 김성호 법무

부 장관이나 인권을 담당하는 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올바르게 책임자 노릇을 하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32년을 달래지는 못하지만...

32년만에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진짜 감회가 새로웠다. 선고 18시간만에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대부분이 학교 교사들이었다. 그 한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런 못된 짓을 자행한 판검사들은 응당한 댓가를 물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 가족들은 수십년을 갖은 수모와 탄압으로 세파를 헤쳐 왔으니 진실규명은 당연하고 가족들의 고통 또한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자는 그때는 그 법으로, 지금도 역시 사법부 판단이라고 발언하여 우리를 어이없게 하였다. 부친의 죄상은 모른척하며 아버지를 칭송하고 계승하여 대통령을 하겠다 하니 한참 잘못되었다. 민가협은 한때 조작고문으로 억지 간첩으로 긴 해를 옥고를 치른 많은 인사들의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사법부는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과오를 드러내고 반성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법부의 위상을 새로 다지기 바란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가족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정의롭고 애국하는 국민으로, 양심 바른 삶을 엮어 가시는 평화적 통일운동을 앞당기는데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12) 인권이 우뚝 선 '행복의 나라'로 달려갑시다

2007년 1월 75호

인권지기로 살아가고 싶다

12월초 생각지도 않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으나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민가협회원 20년 동안 구속학생학부모들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 수 백명이 함께 최루탄 자욱한 거리거리를 헤매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살림 살던 어머니들은 처음에 권력자들의 속임수, 옹공좌경빨갱이라는 말에 넘어 갈 듯도 했으나 곧 자식들의 수호자로서 곳곳하게 한목숨 바쳐 독재자와 싸울 결심을 하고 그들의 비리와 탄압을 알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민중의 함성 속으로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나 혼자 상 받기에는 너무 죄송하다. 그러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내가 나라 훈장을 받는다니 격세지감과 동시에 많은 열사희생자들의 영령과 애통해하는 가족들의 투쟁들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하였다. 요사이도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세상을 하직한 어머니들이 생각이 난다. 우리와 함께 한 젊은 인권지기들이 고맙다. 척박한 인권현실에 상을 받는 것이 아직도 당혹감이 있으나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늙은 인권지기로 있고 싶다.

김지태 이장을 석방하라

국방부는 금년 내내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함께 하는 국민들을 들볶고 특하면 잡아가더니 이 겨울에 또다시 가옥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쫓아낸다고 한다. 천문학적 경비를 들여 미군기지 확장하고자 주민들이 애써 일궈놓은 농토를 없애고 군사기지로 만들겠다고 법원과 함께 엄포를 놓고 있다. 국방부가 힘으로 뽐내고 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진출두한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아직도 석방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탄원서와 석방요구를 못 들은 체하여 가족들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들도 김지태 위원장 석방과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에 함께 하며 평택구치소와 경기도 경찰서로 면회를 다녔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재협상하여 목숨과 같은 농토를 빼앗지 말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줘라. 주민들은 평화롭게 농사짓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국민들이 절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좋은 쪽으로 고쳐주기 바란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심회라는 간첩단 사건을 만들고 간첩이 맥아더 동상 넘어뜨린다하며 연로한 강순정 선생님을 잡아갔다. 강 선생님은 이북고향을 그리워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이며 보안관찰법으로 오랫동안 경찰과 실갱이 해오다 구속이 된 것이다. 8순의 고령나이에 의해 가족들의 근심 또한 크다. 이 겨울 민가협 어머니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수 면회를 다녀왔다. 최희정씨는 가냘픈 젊은 여성으로 연구소 회원이고 일심회 사건의 손정목씨는 씩씩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한다. 공안 수사관들이 다시 빨갱이 타령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간첩누명으로 오랜 옥고를 산 분들, 100여명이 지금도 간첩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청구 기회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또한 강정구 교수님의 통일전쟁 재판도 실형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이 나왔다. 국가보안법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억울한 양심수를 만들며 기세를 누릴런지 이제는 지겹게 여겨진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방송에 나오는 대선주자 얼굴들이 선심을 쓰듯 돌아다녀도 잘 계산된 야망으로 가장한 투기꾼으로 보인다. 우리 교회의 어떤 인사가 대선 주자 후보가 되더니 다시 나오고 현금을 많이 하었다고 한다. 모든 것이 슝슝하다. 이 땅에 진정한 일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분단된 조국 한반도가 형화롭게 통일이 되도록 겨레를 지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인물은 없는지. 그렇다. 이제는 온 백성을 섬기는 일꾼, 정직한 지도자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권력은 늘 물을 흐르듯, 바람 불듯 지나가버리며 겨레와 나라위해 일하는 인물만이 역사에 칭송받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6년 인권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김지태 이장이 국제엠네스티에서 인정받는 양심수가 된 안타까운 경사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옥살이를 한 나동혁씨는 지난 목요집회에 참석하여 11년 만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웃는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싸워줬으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좋겠다. 엄동설한에 착한 농민들을 내몰고 적군과 전쟁하듯 작전을 짜는 국방부 책임자여, 약자를 짓밟는 강자의 비열한 만용은 그 죄의 업보가 꼭 따라오니, 재협상하라. 민주가족여러분,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인권이 우뚝 선 행복의 나라를 향해 달려갑시다.

13)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2006년 9월 74호

도대체 왜들 이러나

금년 815특별사면은 양심수는 단 한명도 풀어주지 않고 정치인(선거법위반 등), 경제인과 일반수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치였다. 7월 중순부터 청와대 여당, 법무부에 양심수 명단과 사면 촉구문을 들고 찾아간 민가협 어머니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에 분통이 터지고 크게 실망했다. 더구나 감옥에서 나름대로 사면을 기대했던 기결양심수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라고 생각하니 점점 의욕이 없어진다. 이번 사면을 통해 갈팡질팡하는 갈지자(之) 행정이 20년 투쟁하는 민가협 어머니들 눈에도 훤히 드러나면서 도대체 왜들 이러나 싶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는 '지금 시국이 어렵다. 따라서 재벌들을 풀어내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정권을 책임지는 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지난날 거리에서, 감옥에서 투쟁했던 예리하고 용감한 투사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나는 이제 고생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독재는 없어지고 비리 부정도 사라지고 제대로 된 세상이 올 거라고 기뻐했다. 물론 나아진 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젊은 세대들의 침

목과 무력증은 나이 먹은 민가협 엄마들에게는 정말 한심스럽다. 겨우 만들어진 경제부흥정책은 현명하지도 않고 국민의 불만을 달래주지도 못하고 있다.

공안기관,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고 있다

여당까지 이 모양이니 국가보안법 찬양자와 공안수사관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다. 호시탐탐 오매불망 정권교체만 골몰하는 한나라당 수구파들이 옛날의 화려한 전승시대가 그리워 색깔론과 억지 애국론을 내세워 잡아가고 재판하고 극우대형 집회로 국민을 현혹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응당한 대가가 잇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외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허망한 꿈을 꾸게 하고 있다. 일확천금에 중독되어 가산을 탕진하고 본인은 물론 가정을 좀먹게 하여 비극으로 내몰고 있다. 나라의 수장들이 머리 숙여 정책상의 실수를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인들 용서할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구태의연한 잣대로 경검·판사들이 재판장에서 시계바늘 뒤로 돌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2심 재판을 3년 만에 시작하였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인권연구소 최희정 활동가의 구속과 강정구 교수님의 통일전쟁 시비 재판 등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앴다는 경찰이 여전히 색깔논의를 일삼고 있다. 이 악법 국가보안법을 2004년에 없앨 수 있었는데도 열린우리당이 결단력 없이 소인배 정책으로 우물쭈물 없애지 못했다.

노동자 탄압을 중지하고 복지정책을 신장하라

작년에 경찰은 FTA 반대 시위하는 농민 둘을 죽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올해에 또 포스코 건설 노동자 하중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도 고인의 머리에 방패 찍힌 자국이 선명한데도 우리가 만난 청와대 담당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됐다'고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말한다. 게다가 구속자는 얼마나 많은가. 포항건설노동자 파업사태로 인해 60명을 구속하고 포항지법에서는 장기구형을 했다고 한다.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외쳤다고 이렇듯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을 보면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시대와 뭐 다를 게 있나 싶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고 하중근씨 죽음에 대해 유가협과 민가협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로 항의했다. 정부는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면책공리만 하는 경찰을 엄중처벌하고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양심수를 빨리 석방하여 집으로 직장으로 돌려보내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모순된 병폐를 반성하여 노동자 탄압을 지양하고 복지 정책을 신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정책

국방부는 황새울 동네를 철거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동네 철거는 큰 쇠덩어리를 공중으로 투하하여 부숴 버린다고 한다. 50여년동안 그 땅에서 농사지어온 농민의 주장을 공포스런 폭력과 탄압으로 초토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황새울 농지 285만평은 미국 주둔지 안에 운동장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 민주와 자주 정신이 위협받는다.

아침저녁의 기온차가 느껴지는 요즘 민가협 어머니들도 이곳저곳에 연대 투쟁하면서 13년째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운동을 탑골공원 정문 앞에서 어김없이 하고 있다. 술 먹은 자들의 욕설이 우리에게 향하면 같이 응수하는 나의 큰 목소리도 여전하다. 아~ 이 땅에 언제 양심수 없는 세상이 올까. 나는 그때 살아있을까. 이북이 고향인 우리 부부는 언제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가볼까. 나라 살림의 책임 있는 자들이여, 정신 차려 바르고 옳은 정책을 세워 세상살이에 골몰하는 국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양심적으로 세워라. 당신들의 권력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애국 열사들 감옥에서 수난의 세월로 희생하신 애국민주인사들이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투쟁!

14) 평화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2006년 7월 73호

어지럽던 정국 속에서 6,7월은 바빠 지나간다. 7월8일, 4박5일간의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한미FTA반대를 위한 평화행진단을 평택상인들이 몽둥이, 야구방망이와 큐대로 무차별 휘두르며 폭행했다. 놀랍게도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이를 말리지 않아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행진단을 포위하여 50여명을 연행하였다. 이에 항의하자 불법집회라며 오히려 단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를 구속시켜 구속적 부심으로 13일만에야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자진출두한 대추리 김지태 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은 아직도 갇힌 몸이 되어 있다. 문정현 신부님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해 일흔이 넘는 노구로 21일간의 단식농성을 했다. 문 신부님은 우중에도 심장병과 싸우면서 늠름하게 버티었다. 함께 지지 단식하는 분들도 많았으나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였고 길 건너 사는 노무현대통령이 원망스러웠다.

7월 10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는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3만5천여명의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범국민대회가 끝나고 청와대를 둘러싼 인간띠잇기를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하였다. 광화문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전경들에게 막혀 인간띠잇기는 진행되지 못했다. 민가협 어머니들도 평택 평화행진단 출정식과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였다.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에 북녘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다. 남북장관급회담이 깨지고 이종석 통일부장은 쌀과 비료 지원을 끊겠다고 언명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인사들이 통일부 앞에 모여 남북의 부적절한 정책기조로 인한 이산가족상봉행사와 면회소 설치가 중단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일의 대북적대 정책에 같이 춤추는 정부 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동안 615공동선언이후 노력하여 쌓아놓은 남북의 성과들이 도루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도적 뜻으로 시작한 '쌀과 비료주기'를 왜 미사일 정세와 결부시키는지 이종석 장관의 경솔한 처사가 못내 유감스럽다.

기자회견을 하는 광화문 종합청사 앞은 문전성시로,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내고 자하는 사람들로 복잡했다. KTX 여승무원들의 힘찬 구호와 600명이나 되는 교대편입선생님들의 복직농성이 딱하였다. 길 건너 노인 단체들이 집회하는 우리들을 보고 욕설하는 얼굴이 추악하여 나는 절대로 저렇게 늙기 싫다고 다짐하였다. 노인 단체들은 "북쪽에 끌려 다니고 퍼주기만 하는 느네들(건너편의 우리들)이 죽일 놈"이라고 큰소리를 친다. 어느 날은 지하철 공사 앞에서 농성하는 아주머니들(청소하는)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택시기사는 "저 꼴 보기 싫다. 우리나라는 데모하다 망한다"라고 감정 섞인 말을 뱉는다. 걸핏하면 길이 막혀 돈벌이에 지장을 주는 시위 군중이 미운가 보다.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라고 응수하면 다소 주춤거린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더 폭넓게 더 멀리보는 정책을 해야겠다. 절대로 굴욕적인 자세로 패권국가 미국의 정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요, 국민을 지켜주는 고마운 나라이니 절대로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되고, 농토가 강제 수용으로 미군기지화 되어도 짝소리 못하고 내주어야 하고, 60년 주둔기지가 썩고 썩어 복구비용이 천문학적인데도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감수하고 수용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정부 관리들의 복지부동이 개탄스럽다. 심지어 한참 피 끓는 일부 대학생들이 미국 주둔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염려스럽다. 그러나 민가협 어머니들은 확실히 안다.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독재자와 투쟁하고 갈라진 조국의 통

일을 위해 감옥을 가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늘날 이만큼이나 세계 자유대열에 끼었다고 생각한다. 북미사일 발사이후 남쪽 정부는 더욱 지혜를 모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

;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행사에 민가협은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법무부를 방문하여 해당 부서에 석방자 명단을 전달하였다. 20년 동안 이어온 일이라 신물도 나지만 이 땅의 양심수가 있는 한 어머니들은 기꺼이 진지하게 양심수의 석방을 역설한다. 현재 양심수는 76명(7월 12일 현재)이며 이번 사면을 통해 미결, 기결 가리지 않고 다 석방되어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자, 철거민,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젊은이, 노령의 강태운 선생님 등은 꼭 석방되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을 이적단체 활동을 한다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엮은 '한청' 사건의 항소 재판이 2년 만에 다시 열려 전상봉 회장 등이 법정에서 다시 섰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도 역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곡학아세하여 편법으로 출세하는 교육자가 아닌 진실된 양심으로 참 역사를 가르치는 이 땅의 소중한 사표로써 추앙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악법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 있어서 가끔 법정에서 눈에 핏발세운 수구 꼴통들이 무더기로 와서 악을 쓰다가 쫓겨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아직도 이 나라의 오랜 숙제가 풀리지 않는 비극의 표시이다. 더욱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력으로 전쟁과 침략이 아닌 대화로써 평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이 거래의 사명이라고 여긴다. 민주가족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5) 민가협 엄마들의 분주한 5월

2006년 5월 72호

장터 잘 마쳤습니다

요사이 들어 부쩍 어머니들의 활동이 많아졌다. 초순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 20주년 행사에 이어, 5월 4,5일 평택 대추리에 대해 군경의 '여명의 황새울작전'이란 어찌구니 없는 이름아래 무자비하게 생지옥 진압작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갈래의 규탄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니 나니 후딱 중순이 되었다. 중순에는 서울대 봄축제 기간 중 민가협 장터가 4일간 열었다. 나만 나이 들고 아픈 것이 아니어서 이제는 거개가 삭신이 쏘시고 여기저기 아픈 늙어

가는 어머니들이라 아침부터 밤까지 음식을 만들고 파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다. 다행히도 금년 봄 장터는 날씨의 축복을 받아 비바람이 없어서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시 한번 서울대 학생손님과 찾아오신 민주인사들께 감사드린다. 1988년 가을부터 연탄불 3개로 시작한 장터가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잡혔다. 우리가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민가협 어머니들 조직운영비로 쓰인다. 물론 회비와 후원금 등도 있지만 이 행사에 크게 기대는 마음이 어쩔 수 없다. “푸짐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이고, 많이 팔아 수익금도 만들자” 대개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해서 양심수 후원, 활동비, 연대투쟁 후원금등 스무해 동안 움직여온 조직의 운영을 구석구석 계획한다.

폭력적인 목살이 바로 독재

어린이날을 앞두고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은 인권·시민단체 등과 함께 50년 동안 농사짓고 살던 땅을 지키려다 밀물처럼 쳐 들어온 15,000여명의 군경들과 저항하여 피투성이로 다치고 부러지고 짓밟혔다.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철조망을 실어다 내려놓으면 군인들은 넓은 들녘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흉물스럽게 쳤다. 황새울 너른 들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군대와 경찰이 막고 있다. 국방부가 2,3년 후에 주둔할 미군들의 기지확보라 하면서 주민들이 뺨을 개간하여 농토를 만든 들판을 강제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날의 황새울은 흡사 전쟁터와 같았다. 많은 부상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600여명을 잡혀가고 살기등등하게 용역강패, 특공대까지 동원되어 주민들이 세운 대추초등학교를 무참히 부수고 오래된 나무들을 파헤쳤다. 오로지 평화를 원하는 농민과 국민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25일 인권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 아닌 대추리 주민들이 군경침입으로 생긴 민폐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이다. 상수도 끊고, 빈번한 화장실 사용, 식사후 생기는 쓰레기, 곳곳에 CCTV 설치, 하늘에는 위협적인 전투기 비행과 헬리콥터로 인한 폭음으로 주민을 불안케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군경이 동네 배회하고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고 검문하면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불쑥 불쑥 문을 열고 수배자 찾는다고 집으로 들어오는 등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였다. 회견을 마친 후에 경찰청 경비국장과 간부들과 면담하여 항의하니 그럴싸한 변명을 해댄다. 더하여 군대를 지키며 철조망 잘라가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CCTV를 열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은 조속한 경찰 철수를 주장하고 군사보호지역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대추리 주민의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없는 기차 레일 같은 논쟁 속에서 비열한 경찰들이 주민들을 괴롭히는 처사를 규탄하였다.

매일밤 7시에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평택미

군기지확장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요즘에는 경찰방송차가 나타나 불법집회라며 해산하라 하면서 큰 소리 높인다. 문화제에 참석자들은 이에 질세라 노래와 야유로 답을 한다. 평택 황새울에 대한 군경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13명이 구속 수감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모두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한다. 왜 미국의 패권주의 군사기지 확장에 이 나라가 발판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정부와 국방부의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민들과 진정한 대화 없이 강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면 바로 독재자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다시 살펴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 원로들의 선거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싹쓸이 당선을 경계하면서 원로들과 민가협, 유가협 어머니들은 531선거 투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차떼기 정당, 유신 잔당들이 이름만 바꾼 수구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앞날의 나라꼴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명한 투쟁이 되길

양심수 김성환씨가 영등포교도소 내 제소자 인권개선을 위해 단식 농성한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갔다. 면회실에서 양심수 김성환씨는 차디찬 손을 내밀어 어머니들 일행을 반겼다. 인사 직후 작년, 감옥에 갇혀 임종도 지키지 못한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 듯 눈물을 글썽였다. 김성환씨는 소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었다. 내용은 우편물의 모호한 배달사레, 식사 개선, 주 5일근무로 인하여 토요일 운동 및 접견이 안되는 현실 지적, 병사동에 창문설치 등으로 그야말로 어머니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감옥내의 인권부재를 통감하게 하는 투쟁이었다. 권위주의가 판치던 독재정권시대보다 좋아졌다고 하는 교도소의 열악한 실태가 한심스러웠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니 소장과 총무과장은 길다란 변명을 늘어놓는 한편, 김성환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빨리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 시정하는 방식을 요구하였다. 김성환씨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혈압이 180이나 되는 김성환씨 건강이 근심되어 새벽에 잠에서 깨었다. 아~ 참 마음이 아프다. 어이없이 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단식까지 하면서 소내 인권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권지기로 자처하는 내 양심을 돌아보게 한다. 부디 몸 적게 다치고 소내 인권은 향상시키는 현명한 투쟁이 되기를 바란다.

여전히 열심히 투쟁하는 이들을 보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싶으나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안타깝다.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돌아오니 심신이 젖은 숨처럼 피곤하다.

16) 봄날, 민가협 엄마 단상

2006년 4월 71호

대추리에서

은 누리가 봄 자랑을 하고 있다. 벚꽃놀이도 한창이며 지다가만 목련과 앵두꽃잎이 연초록 잎새 속에서 마지막 꽃잎을 끊임없이 낙하한다. 보도블럭 사이에서는 꽃다지, 민들레, 꽃무리도 제법 무성하다. 질새라 황사도 적지 않게 도시의 경계를 흐려놓는다. 맨 팔뚝의 젊은이들과 누비웃을 벗은 노인들의 잠바 모습도 봄 풍경에 일부일 것이다. 달리는 차와 오토바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인들의 일상은 얼른 보기에는 활기차고 평온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항거). 국방부와 민초들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 끝이 보이지 않는 실랑이를 말이다. 권력 있는 자들은 인권활동가들을 두 번씩이나 구속했다. 수십 년 대추리에서 농사지었던 농민들은 금년도 씨앗을 뿌려 가을에 거두는 농사를 짓고자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농토 강제 수용에 반발한 농민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그자들의 방해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땅을 지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년 일정에 차질이 나면 일천 억의 손해가 난다고 TV에서 입살머리스럽게 말한다. 4월 7일, 7천명여명의 전경과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40여명 잡아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몽개고 콘크리트를 농수로에 퍼붓는데 1억 8천여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과 용역이 철수한 이후 농토는 3시간 만에 원상복구 되었다. 농수로에 들이부은 콘크리트도 하루만에 다 걷어내어 다시 물이 팔팔 흐르는 농수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농토와 농수로를 원상복구하자, 국방부는 노발대발 공무집행방해죄로 색출해서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감옥에 가는 것이 겁이 나면 이 나라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까닭이 있겠는가. 서울 근교에 미군 기지를 마련 해주지 못해 안달하는 이 나라 정부, 국방부는 한미동맹 아닌 친미동맹으로 굴종과 예속의 전위 부대인가. 농민의 고통과 거래의 정서를 아랑곳하지 않는 반민족적이고 비애국적인 행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는 다시 숙고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펴도록 하기 바란다.

정치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4월 6일 11시에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이란 목표 하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사

앞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민가협 어머니들이 함께 하였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광경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어 형사들에게 고함을 쳤다. 당사 입구를 전경들이 빼곡히 막고 버스 두 대가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저분한 전경버스는 잔뜩 기름 냄새 풍기고 공해를 뿜어내고 숨이 막히는 분위기에 휠체어 타고 온 많은 장애우들과 참석자들은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잠잠히 서 있는 모습들이 또 분통이 치밀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국민들이 소원이 있고 할 말이 있어 왔는데 당사 안에 모셔다 회견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입구를 틀어막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대책과 처리를 할 것이냐. 당장 버스 치워라."라고 악을 쓰자 결국 차는 치워졌으나 종일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 행정이 보다 나은 정책으로 실현되어 장애인이 차별 없이 대접받고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한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은 귀를 막지 말고, 눈을 감지 말고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고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도록 하라.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소문이 신문에 나고, 직원들이 농성도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어떤 위치에 있든 모임에 대표자는 겸손하고 신중한 언행을 하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기는 이중적인 잣대는 버려야 한다. 사태의 결말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비록 좋은 정책이라고 시작했어도 그것이 실패작이거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깨끗이 수용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궁색한 변명에 바른말하는 상대를 비방하고 아랫사람의 악의에 찬 감언이설에 자기변명을 일삼으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다. 쉬쉬해서도 안 되고 비장한 각오로 사태 해결하는 지혜로 개혁을 하며 비전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에 걸맞게 독재를 써서도 안 되고 억지 사업도 지양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일지라도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없애야 한다. 비정규직 관행을 민주화운동을 일컫는 단체에서 아무 이견 없이 단행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반하는 폭거가 아닌가. 부디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깨끗하게 움직여주었으면 한다. 나를 반대하고 뜻을 거슬리는 자를 적으로 삼지 말고 함께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형근 의원, 자숙하라

과거 독재정권시절, 선거 때만 되면 대량 간첩단이 생겨 많은 구속자가 나와 세상이 시끄러웠다. 국민이 겁먹고 있을 때 선거에서 이기는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등 정당이 대승하는 정국을 여러 번 봐 왔다. 고문과 색깔론

과 사건조작날조로 많은 양심수를 끝없는 고통 속에 몰아 넣고 그 가족들까지 분노케 했던 공안수사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침신문(4월 17일, 한겨레) 앞면을 보니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소감을 적는다. 과거 안기부에서 악명을 떨치던 정형근 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들이 국정원 개편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힘을 실어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으로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하는 국정원의 존폐여부까지 고민해온 나로서는 웃기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시민을 억지 수사하여 악독한 고문과 사건조작으로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한 장본인이 그 좋던 시절에 무소불위 권력을 그리워하여 만든 법안인가.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어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신기남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바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정원은 여야 법안을 모두 귀찮아하며 전과 같이 존치해야한다고 우긴다. 이렇게 되면 자체 내의 개혁은 물 건너가고 수사권폐지는 절대 불가하며 대테러센터나 만들어서 옛 권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여당의원들도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테러방지법은 백해무익하고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다. 유사시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행방침이 있다는 사실을 그자들은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 수십 년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참회하고 반성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서 국가발전에 유익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대테러센터를 해마다 거론하는 것은 쯤대 없는 입법자들이 하는 태도라고 여긴다.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폐지하라!

17) 새봄을 맞으며 희망을 품는다
2006년 2월 70호

실망스런 사면소식

며칠 전 청와대에서는 금년 3.1절 기념과 대통령 취임기념 사면 단행은 없다고 발표했다. 춥디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목요일집회를 13년 접어들게 이어오고 있는 민가협 어머니들에게는 저지기 실망스럽고 불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외쳐온 이 집회는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여성(어머니들)운동체로 삶의 쓰고도 눈물겨운 체험으로 점철되어온 가족운동의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양심수 가족들과 그의 동지들은 억울하게 자유를 잃고 갇혀 있는 양심수의 석방과 고통을 애타게 호소한다. 함께 서 있는 민가협 엄마들과 긴 세월 감옥살이한 비전향 장기수선생님까지 때로는 눈물짓고

때로는 분통이 터져 석방하라고 힘껏 구호를 외친다.

매년 초봄의 사면 행사를 오래전부터 기대와 희망으로, 관계있는 기관(청와대, 법무부, 당)을 방문하여 한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일일이 설명하고 그들의 석방을 호소하며 기다렸지 않는가. 나는 이해 할 수 없다. 무슨 좋은 일이라고 TV 화면에 나와서 사면이 없다고 미리 잘라 말하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껄이나 싶다. 청와대가 시혜하고 생색내듯 정치적 필요에 의해 흥정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저울에 달아서 가,불가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출중한 지도자가 국가의 살림살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악법의 희생자가 되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가정은 파탄되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없다. 한 인간의 행복이 권력자에 의해 박탈당한다면 과연 옳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 감옥이 아닌가. 정치인의 비리, 재벌들의 비리를 감싸고 덮어주는 흥정의 덤으로 사면의 은총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노동자, 도시빈민들과 한총련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양심수가 아직도 수십 명이 있다. 오산 수청동 철거민 양심수도 13명이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 중이라니 염려스럽다. 주거권 투쟁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다 석방되어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세상을 바꾸는 힘 - 거리의 시위

오늘 신문(2월 14일)에 평택 평화 시위에 관한 기사가 눈길을 끈다. 무조건 눈에 핏발 세워 무지막지하게 타격 진압이 목적인 경찰의 시행착오가 경찰청장이 바뀌고 좀 정신차렸나 싶다. 수많은 집회에 참석해온 나는 경찰폭력으로 집회·시위를-사전에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이건 간에- 무조건 막고 시위행렬을 봉쇄하려는 작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비극을 수없이 보아왔다. 고(故)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경, 전경의 공포스런 폭력도 다 상관들의 비열한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알리려는 시위는 이제 봄부터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거리에 전경버스가 없어지고 완전 무장한 전경들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 시위대도 평화스럽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바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과 당국이 연구하여 국민의 소망과 생명을 귀히 여겨 주기를 바란다.

이 땅에 민주화 운동의 선봉기치로 오랜 세월 집회·시위 대열에 나서 많은 희생을 치러온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도나마 민주화가 되었다. 어떤 집회가 있어도 경찰공권력의 폭력은 없어야 하며, 위정자들도 정치를 잘하여 사회 불안 요소를 잘 파악하여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국민을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현명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진다면 자연히 시위 농성도 줄어들 것 이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법과 제도

지난 군부독재정권 시절, 많은 애국인사와 정의로운 젊은이들을 권력유지를 위해 온갖 모함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죽거나 감옥에 갇혔다. 민가협 가족들은 몸으로 겪은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죽은 이, 살아남은 이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왔다. 2월 14일 서울 고법에서는 30년 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고문으로 돌아가신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에게 '국가범죄는 시효가 없다'고 하며 '유가족에게 약 18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는 한편, 지난 수십 년 한 탄과 울분으로 지새운 다른 많은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직껏 의문투성이로 미궁을 헤매는 사건은 수도 없이 많으며 그 가족과 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간첩으로 조작되어 형기를 마치고 나서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갈망하는 이들도 있다. 많은 의문사도 밝혀지고 불시에 없어진 이들을 찾아 아직도 찾아다니는 가족들의 고통을 풀어주어야 한다. 후손에게 바른 역사를 당당히 알려줘야 되는 의무는 오늘을 사는 거래의 몫일 것이다. 국회는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을 만들고 위신 떨어진 사법부는 하루라도 빨리 본모습을 찾아 바른 형평으로 법을 집행하여 국민의 희망을 받는 곳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양심수 석방에 머리를 쓰고 정치흥정 속에서 사면운운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6년 이 새봄 민주가족여러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빨갱이 손가락질, 이제 그~만

2005년 10월 69호

가을이 완연하다. 단풍놀이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설악산 오대산의 화려한 전경에 심취하는 등산객이 산꼭대기에서 손흔드는 모습을 TV에서 본다. 사철이 분명한 이 땅에서 각자 바쁜 삶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권력가진 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강요하고, 말 안 들으면 핍박하고 탄압한다. 일제 37년 강점이후 이 나라는 바로 국토가 양분되는 비극에 들어간다. 미소 양 대국은 거래와 땅의 비극을 모른 채

하며 남북으로 가르고, 힘이 없는 한반도는 큰 비극인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500만 명이란 죽음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집권자들은 "6·25 전쟁은 이북이 먼저 침략했고 미군이 크게 도와주자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었을 거다. 유엔까지 보다 못해 군대를 보내어 우리(남한)을 도와 줬다. 그러니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요, 절대적인 맹우요, 거스르면 안되는 큰 상전이다. 어서 북진 통일하여 공산 괴뢰군을 쳐 부셔서 이 땅을 도로 찾자."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치 솔로건처럼 내걸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골수에 박힌 상식이되어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과 생각을 표명하면 그 사람은 위험인물로 낙인찍히고 빨갱이로 처단 된다. 아득한 옛날이야기가 아닌 2005년 오늘날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녘(민국)에서 후세를 기르는 대학교수인 강정구란 인물이 겁도 없이 알아도 모른 채 해야 하는 이 나라 전쟁역사의 평가를 과감히 세상에 알렸다 해서 '죽일 놈이다, 잡아가두어야 한다'고 떠든다. 경찰청장이 잡아 가겠다 하니, 법무부장관이 신분이 공개된 대학교수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고, 검찰총장은 자존심 상한다고 사표를 내고, 받고... 요사이 시끌시끌하며 날뛰는 검사들과 한나라당 박근표 대표까지 거들며 법무부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하라고 이죽거린다. 웃기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신한국당, 민자당들이 수십 년 오랜 구악과 수도 없이 나쁜 짓을 저질러 놓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로지 색깔물리로 양심적인 사회학자를 매장시키고 수세에 몰린 저네들 입장을 거꾸로 돌려놓고 입으로만 외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강을 어찌구 저찌구'한다. 강정구 교수님은 몇 년 전에도 "만경대 정신..."이란 서명사건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 민가협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석방 투쟁을 한 양심수였다.

6·25 당시 21세로 국민학교 교사였던 나는 고향에서 그 해 여름 끝없는 파괴와 죽음을 매일 봐야 했다. 포항은 미군의 함포 사격과 비행기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옆집은 연못으로 바뀌고, 우리 집은 사라지고, 내가 배우던 학교와 근무하던 학교도 없어져버렸다. 수도 없는 친구와 시민들이 학살되고 형산강의 양쪽 뚝에서 오늘은 인민군, 내일은 국군이 점령하는 전투가 되풀이되면서 피난민도 기총 소사로 즉사하고 들과 논이 곳곳에서 군인들의 시체가 나뒹그러져 있었다. 아무 것도 판단 할 수 없었고 박격포와 함포와 공중폭격 속에서 흰옷을 입은 백성은 사상이념을 고사하고 죽지 않기 위해 이리 숨고, 저리 피해도 벌레만도 못한 피난민들은 공포 속에 미군 놈들을 원망했다. 나는 '왜 다 부수고 태울까? 왜 그

럴까? 이게 전쟁인가' 하고 숨죽여 지냈다.

57년이 지난 오늘 나는 70고개 반을 넘겼다. 20여년 긴 오직 갇힌 양심수 석방 운동과 양심수를 만드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해왔다. 세상을 양분하던 이념의 갈등도 평화 통일 민주, 자주를 외치며 양심세력들이 집권 세력들의 탄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애국 애족의 차원에서 면면히 이어와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다. 민가협 가족운동 역사도 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고 여긴다. 이제는 서로 용서 화합하는 통일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비록 나이 많은 우리가 생전에 못 이룬다 해도 곧 이어 받아 새 세상을 열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 특히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좋은 나쁜 바른 판단과 평가를 배워야 할 사실을 가르치는 교수를 잡아가려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평생의 연구 성과인 올바른 지식을 후세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그것을 배운 학생들은 양쪽의 주장을 나름대로 소화해 내어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성을 양성해 주고 미래의 조국을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교양소재로 되어야 될 것이다. 마구잡이로 잡아서 자기들 각본대로 만들고 주입시키는 교육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입법하는 정치인이어야 앞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9월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눈물도 흘리고 보안수사대 폐지운동과 더불어 마음 아파하며 지나갔다. 서울대 가을 대동제에서 민가협 어머니들 장터가 오늘 시작 된다. 늘 많은 성과를 기대하나 나날이 줄어드는 봉사자의 수고를 높이 사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나의 몫인 이것 저것을 챙긴다. 민가협 만세. 어머님들 건강하세요.

19) 9월 국회는 열렸지만 2005년 9월 68호

전국의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요새 부쩍 과거사에 의한 토론회, 청문회, 공청회 등이 많아졌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과거 검·경·국정원의 폭압정치의 산물로 많은 민주인사와 청년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으로 가서 양심수로 옥살이 하는 등 소름끼치는 권력의 악습이 50여년간 계속되었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은 정권유지의 도구가 되어 국민을 속이고 오도하는데 쓰여 왔다. 한창 더운 7월 중순경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센터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직후, 허준영 경찰청장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박정기(박종철 아버지), 함세웅 신부, 이영순 의원, 오종렬 의장, 민가협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개방하고, 유치장도 개조하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믿거나 말거나하는 개혁적인 발언을 하는 경찰청장에게 나는 간곡히 부탁했다. 독재정권시절부터 공권력과 폭행으로 정평이 나있는 기존의 경찰 이미지를 바꾸고 남영동 보안수사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박종철 열사 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요사이 들리는 소문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경찰개혁이 되기를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경찰청을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남영동 대공분실 폐쇄 뿐 아니라 오늘날 44개 독립가옥으로 있는 보안수사대 전부를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월 9일에 국회에서 보안수사대의 앞날을 토론하는 행사도 있었다. 아침 일찍 민가협 어머니들이 참석했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과거의 잘못 뉘우치는 경찰 되어야

1980년 5월에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자, 대통령인 전두환은 수많은 시민학생을 죽이고 폭도로 몰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려 하였다. 집권 내내 전국의 거리마다 진실을 알리는 민주화운동이 벌떼같이 일어나자 빨갱이로 몰아 진압하려는 속셈으로써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는 대공과를 크게 확장시켰다. 이후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굴비 엮듯 날마다 붙잡아서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로 보내졌다. 혹독한 고문과 조작으로 좌경용공 빨갱이로 둔갑시켜 억지자백 시키자니 고문수사관들 또한 과로, 돈사(頓死)하는 사태까지 났다. 고문의 종류도 다양하여 인간으로써는 차마 필살로 쓸 수 없겠다. 9월 12일, 국가보안법 청문회-조작간첩사건에서 임종인 의원은 이렇게 한탄하였다. "고문하수인(수사관)은 뭘 믿고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였을까?" 민가협 활동 20년 동안 보안수사대로 이름을 바꾼 대공분실은 지금도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경찰요원도 2,500여명이나 된다. 현재는 주로 한총련 수배자나 붙잡는 할 일없는 백수, 무위도식 공무원으로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 제성호와 유동렬씨는 보안수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절대로 필요하며 북의 대남적화통일 방침이 변함없는 한 보안수사대는 없앨 수 없다는 등 반말로 괴변을 쏟아놓아 나도 모르게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 특유의 신물 나는 폭언과 악다구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토론회나 공청회 장을 대결장으로 형클어 놓는다. 이런 자들 때문에 국민 판단력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국가권력은 양심 있는 애국자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뒤집어쓰우기도 어려워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들을 호시탐탐 감시한다니 보안수사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경찰